

S C E N A R I O

탈 주

Ver 211229

각본 권성희 / 김우근

각색 이종필

제작 더 램프(주)

Copyright @ The LAMP. All rights is reserved

1. 오프닝

심장이 박동하는 것처럼 북소리 흐르며 화면 밝아지면 -

- 늦은 밤, 막사 안.

잠든 불침번 너머 침상에 수십 명의 북한군 병사들 잠들어 있고.
고참인 듯 창가 자리, 날렵한 인상의 규남. 천천히 눈을 뜬다.

- 깊은 산 속에 위치한 북한 최전방 부대 막사 전경.

창문을 통해 빠져 나오는 실루엣 하나, 규남. 숨 죽인 채 나무숲을 달리기 시작하고.

- 아무도 없는 취사장 안으로 들어서는 규남, 한 치의 멈춤도 없이 -

길게 펼쳐져 있는 식탁 위로 올라가 끝까지 달려가더니 점프,
천장에 닿을 듯 벽면 선반에 서서 쇠젓가락으로 환풍구 덮개를 뜯어내면.
그 안에 책 '위대한 탐험가, 아문센' 그리고 둘둘 말린 비닐 가방.
책 안에 숨겨둔 지도. 비닐 가방 안에 만년필, 나침반, 전자손목시계, 미니 후레시.
규남, 환풍구 안으로 들어가면 -

- 전기철책 부근 언덕, 작은 굴뚝 위로 빠져나오는 규남.

무성한 덤불 속으로 들어가 미리 파놓은 철책 구멍을 통과한 후,
보초병 서 있는 전방 초소를 주시하며, 포복 이동하면 -

-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갈대밭.

나침반이 가리키는 남쪽 방향으로 직진하며, 참았던 숨을 짐승처럼 몰아쉬고.

- 비무장지대 평야, 아름다운 랜즈스케이프 안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규남.

사지절단 된 멧돼지 사체들이 즐비한 지점에 도착하면.

- '지뢰지역' 푯말 철조망을 넘는 규남.

손전등으로 자신이 작성한 지도를 비춰보며, 나침반 보며, 앞으로 나아간다.
지도에 엑스 표시된 구간과 동일하게 이곳저곳 땅에 박혀있는 나뭇가지들.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 이르면, 전자손목시계의 타이머 '30분' 맞춘 후,
땅에 코를 박듯 바짝 엎드린 후 천천히 기어가며,
쇠젓가락으로 땅속을 쑤셔 지뢰위치를 파악, 만년필로 지도에 엑스 표시를 하면.
전자손목시계의 타이머 숫자 점점 줄어들고,
지뢰위치 엑스 표시들, '남'이라는 한 글자를 향해 점점 채워지고,
삐빅- 타이머 알람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오면 -

-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하늘 아래, 미친듯이 달려 북쪽으로 돌아오는 규남.

-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막사 안으로 들어와 침상에 누워 눈을 감으면.

기상 나팔소리 들려오며, 규남의 얼굴 위로 쏟아지는 한 줄 햇빛.
깨어나는 병사들 속에서 규남, 태연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 군가 부르며 아침 구보를 하는 북한 군인들 속에서 힘차게 달리는 규남.
- 사상교육시간. 각잡고 앉은 북한 병사들, 티비 시청한다.
티비에선 탈북 시도한 병사들의 총살처형, 지뢰 밟아 사지절단 등 ‘배신자의 말로’.
무심한 척 바라보는 규남, 침을 꿀꺽 삼키고.
- 다시 찾아오는 늦은 밤, 막사 안.
잠들어 있는 수십 명의 병사들 사이에서 규남, 또다시 눈을 뜨면.

뚝 멈추는 북소리와 함께 떠오르는 타이틀. 탈주.

2. 비무장지대 - 숲속/ 오후

평화로운 새소리 위로 스윽 들어오는 총구들.
규남과 분대원들, 주위를 경계하며 이동중이다.

(확성기)

북한 병사 여러분-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행복한 자유, 풍
부한 기회를 약속합니다-

근처에서 대북방송이 들려오는 가운데 -

분대원1

너무 많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분대원2

이러다가 남조선 수색조를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규남

만나면 손 들어 인사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대수야?!

막내병사 동혁, 걸음 멈추더니 어딘가를 뵈히 보며

동혁

새떼가 낮게 나는 것이 이틀 안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미세하게 표정 굳는 규남, 보면- 저편 땅 바로 위, 새떼가 낮게 날아다닌다.

<인터컷 - 규남의 상상> 지뢰밭에 쏟아지는 비.
파헤쳐진 땅 이곳저곳, 쓰러진 지뢰표시 나뭇가지들, 형상을 드러낸 수많은 지뢰들.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 낭패감 서린 규남의 얼굴을 의심스레 쳐다보는 동혁.
그런 동혁을 의식하는 규남. 태평한 표정, 목소리를 만들어

규남

(분대원1에게) 대대 예보랑 틀리지 않니?

분대원1

예. 나흘 뒤부터 비가 길게 온다고 들었습니다.

규남

(동혁을 놀리듯) 예보보다 이틀이나 빨리 온다?! 이거 이거,
최첨단 과학 위성과 하급전사 김동혁의 몇 번째 싸움이네?!

규남과 동혁, 눈이 마주치는데 이때 팽- 무언가 터지는 소리!
순간 분대원들, 규남과 동혁, 땅에 얼굴을 처박는다.
그리고 정적 속에 들려오는
바스락 - 근처 흔들리는 풀숲 속에 뭔가 있는 듯.

규남

남조선 아 새끼들, 함경도 명포수의 실력을 보여주잖어.

몸을 일으키는 규남, 풀숲을 향해 다가간다.
뒤따르는 분대원들, 맨뒤에서 동혁은 유독 긴장하며 총을 짊 쥐고.
바스락거리는 풀숲 앞에 선 규남, 총구로 확 열어젖혀 보면 -
목함지뢰를 밟아, 다리 찢린 멧돼지가 죽어가며 숨을 헉헉.
그 모습을 씩씩하게 지켜보는 규남.

3. 취사장/ 해질녘

- 화면 가득, 붉은 석양에 물든 규남의 탈출지도, ‘멧돼지 지뢰’ 표시하는 규남의 손.
아문센 책에 지도를 넣은 후 환풍구 닫으면 -

- 일몰 후 푸르스름한 어둠 속 취사장 뒤편.
멧돼지 통바베큐를 요리하는 규남.
세프처럼 능숙한 솜씨로 기름을 바르고, 칼집을 내고, 소금을 뿌리면
어미새 앞 아기새들 마냥 고기를 기다리는 분대원들.

분대원1

분대장 동지 없이 우리는 어케 삽니까.

분대원2

그냥 제대하지 말고 군에 남으면 안 되겠습니까?

규남

아 새끼들, 갈비대 순서 바뀌고 싶어?! 십 년을 어케 버텼는데.. 그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릴거야.

동혁, 규남을 뵈히 보며

동혁

제대하면 뭘 할 겁니까?

규남

할 게... 없지. (사이) 없지만.. 쟁쟁하게! 잘 살 거야!

동혁

대학교 갑니까?

분대원1

대학은 무슨.. 규남이 형 출신 성분이 33등급 중에서도 저~아래 똥간이야. 제대해봤자 농장 아니면 탄광, 캄캄하다.. 미래가 캄캄해..

규남

아 새끼, 내가 말년이라고 까부는구만. 여기 이 멧돼지마냥 각뜨이기 싫으면 헛바닥 원상복구 시키고 고기나 쳐드세요.

규남, 불판에 고기를 구워 분대원들 앞에 놓아주면.

분대원들, 황홀한 얼굴로 고기 먹으려는데 한 순간 얼어붙는다.

규남, 보면 - 다가오는 또라이 박소위(소대장).

규남

아니 요 멧돼지가 지뢰밭을 들쭉신단 보고를 받고..

박소위

엄병.

4. 중대장실/ 저녁

기립한 박소위 옆 책상에 앉은 중대장 앞에서,
규남, 기어가는 목소리로

규남

중대장 동지도 알다시피.. 영양실조로 후송된 동무들이 열다
섯명 넘습니다.

중대장

(버럭) 그 얘기를 지금 왜 해?!

규남

(주눅) 아니.. 수색중 발견한 멧돼지를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중대장

(화색이 돌며) 멧돼지?

규남

그렇습니다. 부대의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박소위

(말 자르며) 정신 나간 아새끼, 그렇다고 분계선을 넘어가?!
(중대장에게) 총화때 비판 받게 하겠습니다!

대꾸하지 않는 중대장, 책상에 있던 책을 펼치며

중대장

최고사령관 동지의 교시야.

책에 적혀있는 문구 -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 우리 군인들에게 고기를 마음껏 먹일데 대하여..’

중대장

여기 보라! 마음껏 고기를 먹이라고 지시하셨어. 이 와중에
우리 임중사가 노력해오고 있지 않았나.

할 말을 잃는 박소위.

규남, 힘차게 거수 경례 올리며

규남

그럼, 소대원들 영양보충 하겠습다!

중대장

아니.. 이게 또 순서라는 게 있지 않잖어?

5. 식당/ 저녁

아침 떠는 중대장과 박소위, 대대장과 간부들, 멧돼지 고기와 뱀술을 먹고 있고.
그 너머 서빙을 하는 규남의 씩씩한 모습.
비굴하게 식탁 위로 단무지 반찬 올려놓는가 싶더니, 고기 몇 점을 쟁반 아래 감춘다.

- 식당 뒤편.

망을 보며, 허겁지겁 고기를 씹는 분대원들.

기수가 달려 빠다귀만 쪽쪽 빠는 동혁에게 규남, 자신이 먹으려던 고기를 넘겨준다.

동혁

... 고맙습니다.

쫄긋, 미소 날려주는 규남.

6. 전방초소/ 밤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감시 초소, 그 풍경 위로 -

(조선중앙방송 앵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내 사전에 탈주병은 없다.”고 선언, 전
군에 감시 체제를 강화하라는.. 치익..

초소 안. 규남, 워크맨 라디오 주파수 돌린다.

치익- 치익- 소리와 함께 잡히는 남한 방송. 음질이 좋지 않지만 윤치 있다.

(라디오 DJ)

... 오늘 야식, 치킨 먹을건데요, 후라이드 먹을지, 양념 먹을
지 남편과 싸우고 있습니다! 치킨은 양념 아닌가요? ... 사공
오팔넴, 다투지 마시고요, 한 마리씩 시켜 드세요. 저희가 치
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초소 밖에서, 동혁. 망을 보며 라디오 사연 같이 듣고 있고.
규남, 치킨 이야기에 입맛 다시고 있는데

(라디오 DJ)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나이는 스물 여덟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늦은 나이지
만, 저는 제 꿈을 향해 부딪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연에 귀 기울이는 규남.

(라디오 DJ)

너는 딱 이만큼이야, 정해놓은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왜 내 인생은 항상 이 모양일까, 이번 생
은 망했어, 그렇게 자책만 하고 살았는데요, 문득 깨달았습니
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행복은
내가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고개 끄덕이는 규남.

(라디오 DJ)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새출발을 응원해주세
요. 모두 행복하시고요! ... 네, 민트초코님, 응원과 함께 신청
곡 보내드립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녹음 버튼을 누르는 규남의 손, 워크맨 안에 공테잎이 돌아가고.
전주와 함께 <양화대교> 흐르기 시작하면, 감상에 젖는 규남의 얼굴.
노랫말 ‘우리 집에 매일 나홀로 있었지~’ 흐르며 -

<인터컷 - 규남의 과거, 고향집>

혼자 집에 누워 종이에 연필로 뭔가를 열심히 쓰는 어린 규남.
‘축구선수, 소설가, 과학자, 부자..’ 등등 수많은 꿈들을 적었던 모멘트.
‘탐험가’ 라고 적힌 글자에 동그라미가 새겨지고.
고향집에서 엄마 아빠와 즐겁게 저녁식사를 하는 어린 규남 가족의 풍경.
시간 경과하여 - 상복을 입고 식사하는 어린 규남과 규남의 엄마, 둘의 풍경.
시간 경과하여 - 상복을 입고 혼자 밥을 먹는 일년 전 규남의 풍경.
밥상 밑에 놓여있는 만년필과 책 <위대한 탐험가, 아문센>을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그 위로 노래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 아프지 말고 오오 아프지 말고 ~’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 규남, 애잔한 얼굴인데 시선을 느끼고 돌아보면
어느새 초소 안으로 들어와 뺨히 바라보고 있는 동혁.

규남

(판청)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노랜데.. 행복하자!

규남, 동혁을 향해 어설피게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오오~’ 부르며 능글맞게 돌아서는데 -

동혁

내일 밤에 비무장 수색 자원했다 들었습니다. (사이) 남한으로 가실거지요?

잠시 멈춰 서 있는 규남의 뒷모습, 웃는 얼굴로 돌아보며

규남

아 새끼, 배때기 굶다 못해 정신이 나갔어?

동혁

예보보다 비가 일찍 내릴거 같으니 가실라는거 아닙니까. 비 내리면 지뢰위치가 바뀌어서 못 가니 말입니다!

규남, 아니라는 듯 노래만 흥얼거리는데 -

동혁

내 봤습다! 두 눈으로 푹푹히 봤습다!

<인터컷>

늦은 밤 막사에서 일어나 창문 밖으로 나가는 규남을, 힐끔 보는 동혁.

취사장 환풍구를 통해 지도 작성을 마치고 돌아오는 규남을, 나무에 숨어 보는 동혁.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 들킨 규남, 동혁의 먹살을 붙잡고

규남

니가 본 건.. 귀신이야, 귀신! 여기 비무장지대엔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 천지야! 어디가서 개소리하면 목을 따버리잖아, 알간?

규남이 먹살을 푸는데 동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동혁

규남이 형..

규남

.....

동혁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당황하는 규남. 동혁은 훌쩍훌쩍.

동혁

내일이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보고싶어 미치겠습니다.. 브로코한테 숙진 않았는지.. 동생하고 남한에선 어째 사는지.. 궁금하고.. 보고싶고..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흐느끼는 동혁의 얼굴에 짝- 따귀가 날아온다.
동혁이 보면, 차가운 얼굴의 규남.

규남

김동혁 동무. 오늘 일은 없는 거로 하겠어. 동무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7. 막사 근처 나무숲/ 밤

초소 근무 마치고 복귀하는 규남과 동혁의 풍경.
나뭇잎들 훑날리는 가운데 적막을 채우는 바람 소리만 불안하게 들려온다.

규남

동혁아.. 이거 갖고 싶어 했지?

동혁, 보면 - 규남의 워크맨 라디오.

규남

나 이제 전역하니 필요없어. (머뭇대는 동혁에게 워크맨 쥐어주며) 딴 맘 먹지 말고, 어머니 생각하며 버티고 살아 남으라. 그것이 최선이야.

동혁

... 고맙습니다.

8. 막사/ 밤

늦은 밤, 창가 자리 침상에 누워있는 규남. 동혁을 주시한다.
대각선 맞은 편에 누워있는 동혁, 쿨쿨 자고 있는 모양.
그 모습을 확인한 후, 규남이 눈을 감으면 - 짧게 화면 암전.

요란하게 비상 사이렌 소리가 웅--
화면 밝아지면, 잠에서 깨는 규남. 보면, 동혁이 보이지 않는다!

불침번 분대원, 비상 스위치를 올리면, 백열등 켜지며 쨍해지는 막사 내부.
수십 명의 병사들, 깨어나 탈주범 추격 태세를 갖추느라 정신 없다.
그 속에서 우두커니 혼란스러운 규남.

9. 막사 앞/ 새벽

위에에엥- 사이렌 소리 더 커지며, 밖으로 뛰쳐나오는 군홃발들.
무장한 병사들 집합하면, 선두에 선 규남.
추격대 분대원들을 한쪽 방향으로 인솔해서 보낸 후
자신은 다른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한다.

10. 취사장/ 새벽

환풍구 덮개를 뜯어내는 규남, 숨겨둔 지도를 찾는데, 없다!

규남

에이 쌍.. 머저리 같은 새끼..

11. 환풍구/ 새벽

소총을 끌어안은 채 좁은 환풍구를 통과하는 규남.

12. 취사장 뒤편 언덕 - 전기철책 앞/ 새벽

취사장과 연결된 작은 굴뚝 위로 빠져나오는 규남.
언덕에서 내려오면 전기철책, 저 멀리 쪼그려 앉아 있는 동혁의 등을 발견한다.

야삽으로 철책 아래 땅을 파고 있는 동혁.
겉에 질러 벌벌벌 떨면서 눈물만 글썽글썽, 이때 날카롭게 쫓히는 “김동혁!” 소리.

수색조로 무장한 규남, 다가오자 - 동혁, 뉘이 나간 상태로

동혁

... 구멍 어딴습니까? ... 파놓은 구멍 어딴습니까?

규남

돌아가자!

동혁

돌아가면 총살입니다..!

규남

아니야, 소대원들 다른 쪽으로 보내놔어, 너 탈주한거 나밖에 모르니 둘러대면 된다, 돌아가자!

동혁

(고개 저으며) 분대장 동지도 넘어갈 거였잖습니까. 지금 갑시다!! 이것만 파내면

하고 급하게 삽질을 다시 하는 동혁.

그러다 삽끝이 철책에 닿아 파파파- 초강력 스파크 불꽃이 튀고.

동혁이 쓰러지면서, 땅바닥에 ‘목걸이’ 하나가 툭 떨어지고.

그 사이 쓰러진 동혁에게 규남이 다가가 일으켜주려는데

동혁, 규남의 소총을 뺏어 들고 겨누며 -

동혁

길 안내 하시라요!

규남

(한숨) ... 이 총 치우라, 지금은 갈 판이 아니다.

동혁

내일 동트기 전에 비 쏟아집니다! 그러면 못 갑니다!

규남

안다, 아니까 수색 나가서, 같이 넘어가자고! 알간?

흔들리는 동혁의 눈빛.

규남

여기로 가면 나도 모르는 길이라서 개죽음이야, 오늘 밤, 내

가 준비한 길로 가잔 말이다! 어?

부들부들 떨다 결국 총을 내리는 동혁.
규남, 긴장 풀리며

규남

지도 어딴니.

동혁, 천천히 손을 들어, 가슴팍 겹주머니에서 숨겨둔 지도를 꺼내려는데 이때
평- 서치라이트 켜지며 두 사람을 새하얗게 비춘다.

규남, 눈이 부셔 찡그린 얼굴로 둘러보면
총구를 겨눈 채 다가오는 분대원 1,2와 추격대 그리고 박소위.
서치라이트 불빛에 얼굴이 새하얀 규남, 두 팔 높이 들고 웃는 얼굴 만들어

규남

소대장 동지, 별 일 아닙니다. 김동혁 동무가 병이 있습니다,
몽유병. 자기도 모르게 나와 길을 잃었..

기습적으로, 펑- 권총을 휘두르는 박소위.
관자놀이를 가격 당한 규남, 쿵- 쓰러지며 이명이 들린다.

(박소위)

추격조 따돌리고 동반탈주 시도한 이 반동분자 새끼!

쓰러진 규남의 시점 - 박소위의 손, 동혁의 겹주머니에서 탈출지도를 꺼내면.
악몽을 꾸는 것처럼 멍한 얼굴의 규남.

13. 대대본부, 심문실/ 새벽

어둠 속에서 깜빡깜빡, 전구 불빛이 점멸하며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

매질하는 박소위의 손, 바닥에 흩어진 조각난 몽둥이 파편들,
그 파편 뿔죽한 끝에 맺힌 핏방울, 그 밑 핏물에 갇힌 벌레 한 마리.

박소위, 규남에게 탈출지도 내보이며

박소위

다시 묻잖어.. 이거 니가 작성했어, 기러티?

끈으로 몸이 묶인 채 무릎 꿇고 있는 규남, 입을 굳게 다물었다.
동혁은 벌벌벌 떨며 아기처럼 울음을 훌쩍훌쩍훌쩍.

박소위

(동혁에게) 그럼 요거이, 니 꺼야? ... (위협하며) 계속 입 다
물고 있으면,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럼, 총살이야, 총살!

동혁, 결국 울음 터지며

동혁

흑흑.. 그러니까 이것이 어케 된 거냐면..

규남, 고개 떨구는데

동혁

흑흑.. 내게 맞습니다.. 규남 동지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흑흑..

동혁을 쳐다보는 규남, 입을 열려다 끝내 못 연다.

박소위, 뭔가 아쉬워할 때. 군인 하나가 들어와 박소위에게 귓속말하면 -

14. 들판 + 대대 상황실/ 아침 (교차)

들판. 흙먼지 일으키며 지프차 세 대가 흙길을 내달린다.

중간 지프차 상석에 앉아 있는 사내의 뒷모습 보이면 -

대대 상황실. 뿡- 문이 열리고 - 박소위, “보위부(안기부)에서 온답니다!” 소리치면,
카드놀이(사사키)를 하고 있던 대대장과 간부들, 크게 당황한다.

대대장

보위부면 ... 리현상 소좌 아니야?!

들판 지프차 안.

여유로운 표정의 맑은 눈동자, 깔끔한 정복 차림의 소좌(소령) 계급장 사내, 현상.

스트라빈스키의 피아노곡을 흥얼흥얼, 피아노 연주하듯 허공에 손가락 까딱까딱.

그러다 문득 날카로운 눈빛으로 전방을 응시하면 -

15. 대대본부, 심문실/ 아침

눈을 뜨는 규남.

둘만 남게 된 상황 속, 동혁이 계속 훌쩍거리며

동혁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흑흑.. 긴데 총살 당하는 게 아픈니
까..? 허 깨물고 죽는 게 아픈니까..?

쾅쾅대는 소리만 널빤, 대꾸 않는 규남.

동혁이 보면 - 조각난 몽둥이 파편, 그 날카로운 끝으로 묶인 줄을 끊어내려는 규남.
안간힘을 써보지만, 좀처럼 줄은 끊어지지 않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쾅쾅.
이윽고 탁- 줄이 끊어지는 순간, 보던 동혁이 놀라며 좋아하는데,
황-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쓴 사내 몇이 우르르 들어선다.
그들 중 현상의 오른팔, 사냥개 같은 인상의 류대위.
그의 전투복에 부착된 보위부 마크를 보고 겁에 질리는 동혁. 규남은 망연자실.

16. 대대 상황실/ 아침

사열받듯, 펼쳐져 있는 압수 물품들 - 탈출지도, 나침반, 만년필, 워크맨 라디오 등.
대대장과 대대 간부들, 그리고 박소위. 잔뜩 긴장한 가운데
가장 상석에 현상이 들어와 앉는다.

모자를 내려놓고 립밤을 꺼내 바르는 현상, 미소 지으며 고개 까딱하면
단상 칠판에 쓰인 글씨 <집행총화 및 처벌위원회> 앞에서 발제하는 박소위.

박소위

임규남과 김동혁의 경우, 동반 탈주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
한데 (규남의 탈출지도 내보이며) 이 지도를 보아, 두 사람이
오랫동안 탈주를 계획했음이 분명한 바.

<인터컷> 심문실 복도. 보위부 요원들에게 끌려가는 규남과 동혁.

박소위

둘 다 공개 총살을 해서 당과 군의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보고서를 스윽 훑어보는 현상.

현상

예, 그래야겠죠~

<인터컷> 심문실 복도. 끌려가며 살려달라고 발악하는 동혁. 체념한 얼굴의 규남.

현상

긴데..

하며 손가락 하나를 내보이는 현상, 박소위에게 천천히 다가서며

현상

이 문건에 따르면 지도작성을 했다는 김동혁의 자백이 나왔는데, 임규남 중사는 왜 벌을 받아야 하나~?

박소위

두 사람은 임무를 수행하며 늘 각별했기에..

현상

각별?!

현상, 순간 웃음이 크게 터진다.

진정하려 하지만 한 번 터진 웃음을 주체할 수 없는 현상.

같이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한 대대장과 대대 간부들 그리고 박소위.

현상

(웃음을 진정시킨 후) 미안하오.. 각별이라니, 박준평 소위~

미소 짓는 현상. 덩달아 미소 짓는 박소위.

현상, 책상 위에 있는 나침반 그리고 만년필을 만져보며

현상

말해보라, 지도 작성을 임규남 중사가 했다는 증거가 있어?

우물쭈물 박소위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현상.

현상

특의양양하구만~ (대대장과 간부들 향해 돌아서며) 탈주범 발생한 부대의 지휘관들 주체에 다들 특의양양하십니다~

나긋나긋, 읊조리는 현상이지만 모두 위축되는 분위기.

현상

내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지. 김동혁이 도주하자, 임규남 중사는 평소 아끼던 분대원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시도한 것이지. 발견 당시, 임규남 중사가 김동혁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것이 사실이지?

박소위

그렇습다!

현상

판결에서 사실보다 중요한게 있겠소? 사실을 근거로 다시 판단한다면

현상, 분필을 들더니, ‘처’ 글씨를 손으로 지우고 ‘상’으로 바꿔 적는다.
<집행총화 및 ‘상’벌위원회>로 바뀐 칠판 앞에 서서

현상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공화국에 탈주병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언짢으신 상황이요. 긴데...

<인터컷> 캄캄한 지하 복도. 개처럼 끌려가는 동혁의 모습이 짧게 보여지고.

현상

‘탈주자가 둘이나 발생하였소’ 하고 보고하는 거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인터컷> 세면장.
발가벗겨진 규남의 몸에 짹- 물이 뿌러지고, 탁- 새 전투복이 떨어진다.

현상

‘탈주자를 붙잡은 인민의 노오~력 영웅이 있소’ 하는 거이 좋았습니까.

17. 들판/ 낮

흙길을 달리는 지프차 세 대.

맨 뒷차 안, 규남. 어디로 가는지 몰라 불안하게 주변을 살펴보면 -
옆자리 보위부 허리춤의 권총, 대각선 앞자리 사냥개 인상의 류대위.
창밖을 보면, 저 멀리 땅에 가까이 붙어 나는 새떼들.
바라보며 점점 초조해지는 규남의 표정.

흙길 복판에서 끼익-
지프차 세 대 멈추면, 주위에 솟아나는 흙먼지.

차 안에서 규남, 보먼 -
운전석의 사냥개 류대위, 콘솔 박스를 열어 통행증을 꺼낸다.
여권처럼, 류대위 사진 위에 (지휘관) 도장이 찍힌
통행증을 챙겨 차에서 내리는 류대위, 동승한 부하들과 함께 저 앞으로 달려가고.

혼자 남겨진 규남,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 -
저 앞, 두번째 지프차에서 내리는 현상, 보위부 부하들에게 뭔가를 지시.
보위부들, 나머지 지프 두 대를 타고 먼저 떠나면.

혼자 남은 현상, 왠지 허무하고 쓸쓸한 얼굴.

표정 바꾸어,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규남을 향해 다가온다.
그러자 초조해하는 규남.
가까이 다가온 현상, 규남을 향해 장난치는 미소.

18. 평야 도로, 지프 안/ 낮

운전석, 규남이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뿔엿, 상석에 앉은 현상. 주머니에서 눈깔사탕을 꺼내 까며

현상

너.. 탈주했어?

규남

아닙니다. 탈주자를 잡으려 했던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현상

기렇디, 기렇디, 규남이 너.. 탈주할 박력있는 종자는 아니잖아?! 너네 아버지 닮아서.

스윽 뒤를 돌아보는 규남.
그 바람에 꿀렁- 요철에 닿아 흔들리는 지프차.
동시에 차 바닥으로 떨어지는 눈깔 사탕.

현상

(사탕 주으며) 에헤이~ 전방주시 집중! 너네 아버지가 우리 집 운전수할 땐 어찌나 평탄평온했는지, 내가 키우던 강아지 번개도 차에서 자는걸 제일 좋아했어. 기억나지?

하고는 먼지 털어낸 눈깔사탕을 규남의 입 앞에 내민다.

얼굴이 굳는 규남. 결국 입을 내밀어 받아 먹으면
만족한 듯 웃는 현상, 자신은 금강산 샘물 생수통에 발포비타민을 넣어 마시며

현상

어머니는 잘 계시고? 제대한다니까 좋아하시지?

규남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상

아.. 기렇디, 기렇디, 소식 들었던 거 같다. 아이고~ 장례식
못 가봤네~

썩썩한 미소 짓는 규남.

현상

고향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고, 고민 많았어. 제대하면 뭐 할
거야?

규남

고민 없습니다. 당이 정해준 곳에서 인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현상

아 새끼.. 이래서 내가 널 이빠하는 거야. 운명을 받아들일 줄
안다 이 말이지.

현상, 규남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유창한 러시아어로

현상

예슬리 쥐즌 찌바 아프마넛, 네 빠찰싸 네 쎄르디스.
(자막-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하지말라)
브 쎄 우너니야 스미리스. 쎄 비술라, 베르, 나스파넛
(자막-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올 것이니)
푸쉬킨인데, 알간?

규남

(어리둥절) ... 탈주범 김동혁이는 어케 됩니까?

<인터컷> 온몸이 뽕뽕 묶인 동혁, 트럭 짐칸에 실려 이송 중이다.
동승자 군인 손에 들려있는 동혁의 압수 물품들 - 그 안에 규남의 탈출지도 보이고.

트럭이 '현풍리 경무부(헌병대)'로 진입하면.

(현상)

현풍리 구류장에 립시 수감됐다가 그 다음은.. 어떤 배려도
없지 않았어~

규남의 굳은 얼굴 위로, 탕- 충성이 울리면.

19. 사거리. 낮

이정표 <현풍리 경무부> 바로 근처.

수풀에다 소변을 보는 현상.

지프 운전석에서 규남, 초조한 표정.

규남

소좌 동지.

현상

정 없이 왜 그래? 어릴 때처럼 형이라고 부르라.

규남

형.. 간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지를 추스리며, 대꾸없이 피아노곡만 흥얼대는 현상.

느긋하게 1회용 물수건(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으며 차로 돌아와

현상

(핸드크림 바르며) 오늘 사단본부에서 총정치국장 주최로 연
회가 있는데, 존경하는 사단장 동지, 그러니까 내 가시아버지
께서 돋보일게 필요하시니 우리 규남이가 잘해야 된다~

규남

내가 뭘..

현상

너 탈주범 때려잡은 영웅이잖아, 기렇디?

예.. 하면서 차를 출발시키는 규남.

초조한 얼굴로 지프차 전자 시계를 보면 오전 11시 30분.

그러다 룸미러로 뺨히 보고 있는 현상과 눈이 마주친다.

현상

왜.

규남

아닙니다.

현상

나는 너 반가운데, 너는 내가 안 반가운 거 같다?!~

규남

... 옛날하고 너무 달라져서.

현상

멋있어졌지?

규남

군인이 될 줄은 몰랐습다.. 피아노 형.

현상

... 음악 좀 틀라.

규남, 카오디오 틀면 - 차이코프스키의 춤곡이 흐르기 시작하고.
달리는 차창 너머 입간판 선전문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스쳐지나가고.
땅에 가까이 붙어 날개짓하는 새떼들, 멀어져가면 -

20. 사단 연회장/ 낮

호화롭게 꾸며진 연회장 안.
핑크색 드레스 입은 관현악단 앞에서 사교댄스를 추는 장성들, 와이프들, 자제들.
하나같이 배불뚝 장성들 속, 몸매 관리 잘 된 현상을 힐끔대는 상류층 여성들.
현상, 우아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파트너를 바꿔가며 턴, 턴, 턴.
그러다 문득 보면, 현상을 보고 있는 하얀 얼굴의 여성 - 선우월.
눈이 마주치는 두 사람, 아는 사이인 듯.
하지만 이내 모른척 하는 현상.

(1사단장)

제 사웁니다, 사위.

댄스타임이 끝나고 스탠딩 파티를 즐기는 상류층들.

총정치국장에게 소개를 올리는 1사단장, 거수경례하는 현상.

총정치국장

그래, 자네가 리택기 동무 아들이구만, 내가 잘 알지.

현상

아버지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총정치국장 아내

색시는 같이 안 왔고?

현상

임신해 갖고 집에 있습니다.

총정치국장 아내

어머나! 축하 드려요!

현상, 근처에 있는 선우월을 의식하고.

그런 현상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

뛰다놓은 보릿자루 같은 규남. 시선을 돌리면

한켠에 세팅된 고급 술과 각종 육류, 과일 안주들. 그 곁에서 바라만보는 하급 병사들.

규남, 댄스홀 한켠에서 상류층 자제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본다.

테블릿 피씨로 외국여행 기념사진을 보며 웃는 그들.

규남, 고개 돌려 출구쪽 벽시계를 보면 - 오후 1시 35분.

(시간 경과)

무대 단상에 선 총정치국장의 “위대한 조선로동당..” 일장 연설이 시작되고.

초조한 얼굴의 규남, 보면 - 벽시계, 오후 2시 5분.

쭈걱, 쭈걱, 쭈걱.. 길게 연설하는 총정치국장의 입 위로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려오고.

예민하게 날이 선 규남, 저 멀리에 있는 현상과 눈이 마주친다.

현상, 규남을 향해 무대로 올라가라는 손짓을 보내면.

총정치국장

... 영웅을 호명하고자 한다. 임규남 중사!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대로 올라서는 규남.

총정치국장에게 군기 빠작 들어 경례!

총정치국장

반동분자 때려잡은 소감을 말해보라.

규남, 링크 날리는 현상을 보고

규남

에..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뛰어난 선견지명을 가지신 사단장 동지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로를 사단장 동지께 돌리겠습니다!

총정치국장

전우애 넘치고 훈훈한게~ 마음이 흡족하다!!

칭찬 받아 기분 좋은 사단장. 그 옆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 짓는 현상.

사진 촬영이 시작되고 -

규남이 총정치국장, 사단장과 함께 포즈 취하면 - 팡 팡 팡 터지는 카메라 플래쉬.

(시간 경과)

샴페인 잔이 부딪히고,

사단장과 함께 총정치국장 내외에게 접대하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현상.

기다리는 규남, 현상의 시야에 들기 위해 이리저리 알짱알짱.

이윽고 현상이 규남과 눈이 마주치면, 다가와서는

현상

오쭼 마려운 개새끼마냥 왜 그러니?

규남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부대로 돌아갈 수 있게

현상

어어, 안 가도 된대야, 사단장 동지께 말해놔어.

규남

... 예?

현상

너 사단본부에 배치됐어, 사단장 직속보좌.

당황하는 규남.

미소짓는 현상.

현상

내가 다 배려해줬으니 절차 밟으러 가자.

멍한 얼굴로 멈춰 서 있는 규남.

현상

뭐 해? 빨리 가자.

21. 사단본부 가는 길/ 낮

커다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그 나무 근처, 저만치 앞서 걷는 현상.
규남, 쫓아가며

규남

소좌 동지!

소리치자, 걸음 멈추는 현상. 스윽 돌아보며

현상

너는 예의 바른 거야? 바른 척 하는 거야? 형이라고 부르라
카지 않았어?!

애써 미소 짓는 규남, 다가서며 씩씩하게

규남

저기.. 나 인차 제대하는데, 여서 뭘 하란 말입니까.

현상

(당연하다는 듯) 계속 군생활하라, 너 나가도 할 거 없잖아?!

규남

(대꾸할 말이 없다)

현상

직속보좌라는 거 별 거 없어, 사단장 집안일 돌봐주고, 운전
해주고.. 잘 알잖아?! 너네 아버지만큼만 하면 된다야.

규남, 주저하다가

규남

아니 기래도.. 내 앞길을 왜 맘대로 정하십니까.

현상

그럼 니 앞길을 니가 정하니?

서글퍼 보이는 규남에게

현상

규남아, 이거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야. 막장 가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라. 최소 굶을 일은 없지 않았어?

규남

.....

현상

아이고, 너 기다린다.

보면, 사단본부 건물 방향.

카메라 든 사진병에게 뭔가를 건네받는 사단장 당번병, 규남을 기다리고 있다.

규남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먼저 부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현상, 규남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규남

갑작스러워 그렇습니다. 동무들한테 작별인사도 해야되고, 두고 온 비품들도 있고.

현상

뭘 두고 왔는데? 이거?

하면서 현상이 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 보면, 규남의 만년필. 순간 겁에 질리는 규남.

현상

이거 너네 아버지 유품이지? 간수 잘하라.

만년필을 속 질러넣어주는 현상.

어디에 시선을 뒹야 할지 모르는 규남.

그런 규남을 현상이 한심한 듯 바라보며

현상

허튼 생각 말고 받아들여. 이것이 니 운명이야.

사단장 당번병이 다가오자,

현상

(러시아어) 츠레베크 엘터 체보트넷, 프레보킷 코 씨르.. 인간
은 어떤 거에도 익숙해지는 동물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인데,
알간?

현상이 사단 행사장을 향해 가면 - 혼자 남겨진 규남의 뒷모습.

당번병

가십시오.

다가온 당번병의 손에 들려있는 사진들.

행사장에서 사단장과 찍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는 규남.

규남

내 얼굴 사진, 하나 가질 수 있습까.

22. 사단장 당번실/ 낮

은밀하게 커터칼을 쥐는 손.

규남, 증명 사진 크기로 행사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자른다.

‘자력갱생’ 글자 박힌 거울 너머 -

규남, 작성한 전입신고 서류를 들고 당번병에게 다가가 건네주면.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는 당번병의 손, 그 옆 통행증들.

당번병이 자리를 뜨면 통행증을 한 장 슬쩍, 그 위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붙이고.

규남, 사단장실 열린 문틈 너머를 힐끔.

사단장 책상 서랍을 여는 당번병, 전입신고 서류에 사단장 도장을 땡!

그 서류를 들고 나와 규남에게 건네주며.

당번병

배치 신고는 내일 하시고, 이 문건은 1층에 갖다주면 됩니다.

당번병, 사단장실 문을 열쇠로 철컹 잠그면 -

23. 사단 화장실/ 낮

입김을 불어가며 탁탁탁.
 규남, 전입신고 서류에 찍힌 사단장 도장을, 통행증에 묻혀보려 안간힘.
 그러나 흐릿한 빨간 인주는 좀처럼 묻어나지 않고.

24. 사단장실/ 낮

2층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 - 나무가 흔들리더니 밑에서 규남이 올라온다.
 숨 죽인 채, 창문을 열고 텅 빈 사단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규남.
 책상 서랍을 여는데 잠겨 있고,
 품에서 만년필을 꺼내 날카로운 축으로 딸깍- 열면.
 서랍 안, 사단장의 도장이 보이고.
 위조한 통행증, 규남의 사진 위로 도장이 황-

25. 사단 뒷산/ 낮

두리번두리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는 규남.
 빠른 속도로 사단 뒷산을 오르며, 숨을 헉헉헉.

 언덕 위에 올라 내려다보면, 저 밑에 울타리 철조망.
 규남, 철조망을 향해 빠르게 내려가는데,
 순간 멈칫, 돌아보면 - 누군가와 눈이 딱 마주친다.

 총을 든 채 규남을 수상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산꼭대기 초소, 울타리 경계근무 보초병 둘.
 긴장감 속에서 규남, 느긋한 얼굴을 만들어

규남

무탈하네?

보초병

예?

규남

불시점검 나왔어.

보초병 둘, 규남의 중사 계급장을 보고 경례 올리며

보초병

요주의사항 없이 무탈합니다!

규남, 계단을 따라 저벽저벽 산꼭대기 초소로 올라가며

규남

기래? 경계태세가 참으로 탁월하구만.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우다 만 담배꽂초를 주워 내보이는 규남.
바짝 쪼는 보초병 둘을 향해, 비릿하게 웃으며

규남

쌍안경 줘보라.

규남, 보초병에게 건네받은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펴본다.
산꼭대기 초소에서 둘러보니 흰하게 내려다 보이는 사단 이곳저곳.
망원경 시점으로 보이는 울타리 초소 근무병들, 곳곳에 배치된걸 확인하는 규남.
시점 화면, 획 돌아가면-
지프차 몇 대가 빠져 나가고 있는 정문 위병소. 화면 획 돌아가면-
사단 연회장 근처, 여러 대의 군용 지프차들이 길게 주차되어 있다.

26. 사단 연회장 주차장/ 낮

무언가를 집요하게 찾는 눈동자.
운전병 하나가 술취한 장성을 차에 태우고 있는 가운데
규남, 주차된 지프차들을 급하게 살핀다.
그러다 열쇠가 꽂힌 차를 발견, 둘러보면 -
구석에서 지휘관 운전병들, 담배 피우며 농담 따먹기를 하는지 킁킁.
규남, 긴장감 가득한 얼굴로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면 -

27. 사단 연회장/ 낮

술내기라도 하는 듯 연거푸 위스키를 들이키는 총정치국장과 사단장, 장성들.
한편에선 총정치국장의 와이프, 그리고 상류층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현상.
임신한 아내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

총정치국장 와이프

나라일로 바쁘신데 가정적이시네~

현상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지요~

호감을 보이는 상류층 여성들 속에서 시선이 마주쳤던 선우월이 특.

선우월

피아노 연주는 끊으셨습니까?

현상

.....

총정치국장 와이프, 궁금한 듯 현상을 쳐다보면

선우월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리현상 동지 피아노 솜씨가 제대로라고 들었습니다.

총정치국장 와이프

어쩐지 손가락이 범상치 않다 했습니다.

그러자 손을 감추는 현상.

상류층 여성들, “피아노 연주해 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간청하면

매너 좋게 거절하는 현상.

그런 현상을 주시하는 규남의 시선, 획 돌아가면 -

만취한듯, 테이블에 코를 박고 졸도해 있는 대머리 장성.

게슴치레 눈을 뜨더니 화장실 가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걷다 휘청휘청,

쓰러지려는 순간 낚아채듯, 규남이 부축하면 -

28. 사단 연회장 앞 + 정문 위병소/ 낮

숨이 막힐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규남, 대머리 장성을 부축하며 지프차를 향해 천천히 다가간다.

태연한 얼굴을 하고 꺽꺽 걸어가며 스윽 고개 돌려보면.

여전히 구석에서 킁킁대며 떠들어대는 운전병들.

규남, 다시 지프차를 향해 고개 돌리는데 - 갑자기 눈 앞에 나타난 장교 하나.

규남과 대머리 장성을 번갈아보더니

장교

약주만 드시면 이 모양이니 잘 모시라.

장교가 지프차 문을 열어주고, 대머리 장성을 태우는 규남.
차를 출발시키는데, 막 도착한 류대위와 보위부 부하들이 보이고.
운전석에서 모자 깊게 눌러쓰는 규남, 류대위를 지나쳐가면 -

저 멀리 정문 위병소, 점점짐 다가온다.
위병소 근무병, 높은 사람 차량 다가오자 바리케이드 열어주고.
규남, 애써 태연한 표정 짓고 있는데

이때 턱- 규남의 어깨에 올라오는 손.
규남, 놀라 보면 - 대머리 장성, 눈을 게슴치레 뜨고 말없이 보더니

대머리 장성

물.. 물..

규남, 차 안을 보면, 쿠레주 명품 선글라스와 금강산 샘물 생수통.
생수통을 먹여주면 대머리 장성, 질질질 물을 흘리며 다시 잠들고.
무표정하게 규남을 주시하던 위병소 근무병,
잠들어 있는 대머리 장성을 보고 깃들하게 경례를 올린다.
위병소를 빠져나오는 규남.

<인터컷> 천천히 눈을 뜨는 대머리 장성.
둘러보면 사단 근처 허허벌판. 여기 왜 누워 있는지 모르겠다는 얼굴.

29. 평야 도로 - 사거리/ 낮

광활하게 펼쳐진 평야를 질주하는 점 하나.

지프차 운전하는 규남, 해방감 만끽하며
‘빠라밤 빠밤~’ 악을 쓰듯 신나게 노래 부른다.

규남

(노래) 우리 집에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씨 두라이버~ 어
린 날의 날~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선전문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스쳐 지나가고.

가사를 잘 모르는 듯, ‘행복하자~ 행복하자~’ 반복하다가,
이상하게 눈물 맺히는 규남.

이정표 <현풍리 경무부> 표시 다가오자,
규남, 다시 결연한 얼굴로 숨을 고르는데 -

저 멀리 사거리 오른편에서 다가오고 있는 군용 차량들 보인다.
동시에 오바이트하듯, 흔들리는 규남의 지프차.
보면, 계기판의 연료 부족 램프.
당황하는 규남.
그러나 군용 차량들, 사거리에서 그대로 직진 - 멀어져가고.
규남, 안도하는데
털털털 멈추는 연료 부족 지프차.
그러자 직진하던 군용 차량들, 브레이크 밟아 멈춘다.

30. 사거리/ 낮

멈춘 상태로 가만히 있는 군용 차량들 - 지프차 한 대와 두돈반 트럭 두 대.
불안해지는 규남.
멈춘 차 운전석에서 상황을 주시하면 -

군용 차량들, 후진하기 시작하고.
사거리로 돌아와, 규남의 지프차 방향으로 점점점 다가온다.

긴장감에 숨을 몰아쉬던 규남. 차에서 내려,
트럭에서 하차하는 소위 계급장 정 경무원(헌병)에게 먼저 다가가

규남

랑패야, 랑패.. 수고하십니다. 휘발유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대꾸하지 않는 정 경무원, 의심 가득 규남을 훑으며

정 경무원

통행증 확인하겠습니다.

규남, 품에서 통행증 꺼내 건네주며
트럭 짐칸에 한가득, 빨간 완장을 찬 무장 군인들을 힐끔댄다.
사단장의 도장이 찍힌 통행증을 꼼꼼하게 살피는 정 경무원.

규남

(당당하게) 1사단장 직속보좌 임규남 중사요.

정 경무원

실례했습니다. 우리 차에서 기름을 꺼내

목소리

꺼내긴 뭘 꺼내나.

소리에 보면, 지프차에서 내리는 위압적인 인상의 사내 - 차 소좌.
경례 올리는 규남에게

차 소좌

사단장 직속 보좌가 기름도 채우지 않고 어디로 가나? 그것
도 차량을 혼자 몰고?

규남

기밀 임무 수행중입니다.

차 소좌

(비웃으며) ... 기래?

비웃는 차 소좌,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건다.

차 소좌

교환, 교환 ... 사단장실 연결하라.

신호가 가는 동안, 긴장하는 규남.

차 소좌가 규남을 노려보면, 규남, 질세라 당당하게 눈을 부라린다.

차 소좌

뭘 보네?

규남

(신기한 척하며) 이거슨 최고 신식 손전화기 아닙니까?

하면서 규남, 차 소좌 가까이 다가가 통화내용을 엿듣는다.

차 소좌

(연결된 듯) 사단장 동지 직속보좌에.. (규남의 전투복 안쪽에
새겨진 이름을 들춰보며) .. 임규남 중사라고 있나.

긴장하는 규남.

(사단장 당번병)

예, 오늘 배치되었습니다.

규남, 안도하는데.

전화를 끊은 차 소좌, 규남의 얼굴을 빤히 보며.

차 소좌

오늘 배치 받은 자가, 숨 돌릴 틈도 없이 기밀임무 수행중이다?

규남

애초에 임무 수행을 위해 사단으로 파견된 겁니다.

차 소좌

파견?! 아이고 무서워라.. 보위부 소속이라도 된다는 거야?!

규남, 일부러 보란 듯 입을 꼭 다물어 버린다.

마치 ‘그럴수도 있죠’라고 말하듯.

그 태도에 차 소좌, 움찔.

차 소좌

기름이 필요하다 했지? 일단 같이 가자.

규남

한시가 촉박한 사안이라 지체할 수 없습니다.

차 소좌

어차피 우리도 남은 기름이 없서. 쯤 언덕만 넘어가면 현풍리 경무부니, 가자.

의심하며 위협하는 차소좌에게

규남

진작 그 말부터 하지 그랬습니까. 지금 현풍리 경무부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소좌

?

규남

그곳에 오늘 오전 민경부대에서 인계된 탈주범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혁이라고.

차 소좌

... 어케 알았어?

규남

(손가락 들어 위쪽 가리키며) 지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 소좌

(겁 먹으며) 너 ... 진짜 보위부에서 나왔어?

규남

깊숙하게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공조한 탈주범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추가 색출을 위해

규남, 위쪽 가리킨 손가락을 품 안으로 넣더니
(사단장 지프차에 있던) 쿠레주 명품 선글라스를 꺼내 땀시있게 착용하며

규남

김동혁과 그자의 증거물 지도를 수거해 가야하오.

31. 경무부 앞/ 낮

단층 건물 경무부 전경, 현관 문이 열리고 -
경무원들, 다급하게 뛰쳐 나와 맞이할 채비를 한다.
이윽고 도착하는 지프차에서 내리는 선글라스 규남, 안으로 들어서면 -

32. 경무부 사무실/ 낮

경찰서와 비슷한 구조의 탁 트인 경무부 사무실.
서서 대기하고 있던, 십여 명의 장교들은 감찰조사 받듯 얼어있는 분위기.
규남, 선글라스 벗으며 다가가보면. 가운데 책상에 물품들 펼쳐져 있다.

경무원1

탈주범 김동혁의 증거물들입니다.

규남, 보면 -

나침반, 후레시, 워크맨 라디오, ‘행복하자’ 적힌 공테잎 등등 그리고 규남의 탈출지도.
‘남’ 이라고 적힌 한 글자를 향해 지뢰위치 엑스 표시들, 뺄곡하게 기입되어 있다.
규남, 인수인계 서류에 ‘임규남’ 이라고 서명하며

규남

아 새끼, 치밀하구만.

33. 지하 구류장/ 낮

철경- 캄캄한 지하에 문이 열리고.
규남, 후레시를 든 경무원의 안내를 받아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

좁은 복도, 양쪽으로 감방 같은 구류실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 울음 소리들 들려오고.

구류실 독방 문이 열리면, 아기처럼 홀쩍이고 있는 동혁의 뒷모습.
홀로 안으로 들어가는 규남, 동혁의 뒷모습에 대고 위엄있게

규남

어이 김동혁이.

동혁

(벽을 본 채 겁에 질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착잡해지는 규남, 동혁의 귓가에 속닥.

규남

어머니 보고 싶은 게 무슨 잘못이래?

천천히 고개 돌려 규남을 알아보는 동혁.
놀라고 멍하고 혼란스러워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는 얼굴.
규남이 쩡긋, 미소 날리며

규남

오늘 밤에 같이 간다 했지? 가자.

34. 경무부 앞/ 낮

지프차에 시동을 거는 손.

시동이 걸리는가 싶더니, 덜덜덜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다가 뚝 꺼지는 지프차.
경무부 정비병과 기름통을 든 병사, 이상하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면.

35. 경무부 사무실/ 낮

달려 들어온 경무부 정비병의 이야기를 듣는 콧수염 중위,
의심 가득한 얼굴로 저편을 스윽 보면 -

지하에서 올라오는 규남과 손이 묶인 동혁.
차소좌가 규남에게 다가서며

차소좌

임무수행 중 불편함은 없으셨고?

규남

소좌 동지의 탁월한 지도 아래 현풍리 경무부는 질서가 잘 잡
힌 것 같습니다. 내 이 점을 반드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차 소좌, 웃는데
다가오는 콧수염 중위, 규남을 흘겨보며 차 소좌에게 뭐라 뭐라 뭐라고 귓속말한다.
불안해지는 규남.

차소좌

(콧수염 중위에게) 너 나랑 연애하니? 어디서 속닥거려?

콧수염 중위

중사 동무가 휘발유를 넣으라고 지시해서 따랐는데, 발동기가
경유용이었습니다!

긴장하는 규남과 동혁.

차소좌

(규남을 스윽 쳐다보며) 기래서?

콧수염 중위

임무 중인 자동차 연료도 모르는 것이 수상합니다.

찰나의 순간, 규남.

차 소좌의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뽑기 위해 손을 뻗으려는데-
썩- 강한 따귀를, 차 소좌가 콧수염 중위에게 날린다.

차소좌

보위부 동무를 의심해? 오늘 파견 나와 혼동할 수도 있지?!

콧수염 중위, 고개 떨구고.

차소좌

서운한 마음 푸시게.

규남

아닙니다. 철통같은 경계태세, 한 수 배웠습니다.

고개 떨군 콧수염 중위, 뭔가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 시선 따라 규남이 보면 -

비닐 가방 안에 담긴 동혁의 증거 물품들, 맨 위에 탈출지도.

근처에 놓여있는 인수인계 서류.

탈출지도 하단 글씨 ‘남’과, 서류에 서명된 규남의 사인 임규‘남’.

다소 독특한 필체가 똑같다.

눈이 마주치는 콧수염 중위와 규남.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차소좌

(규남에게) 고장난 차량은 정비되는대로 사단으로 보내주
겠네. (콧수염 중위에게) 야, 차량 지원해주고 인원도 지원
해서 내륙 출발 하라우.

규남

차량만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번잡스럽게 움직였다가는 지체
될 수 있어

콧수염 중위

아니지, 보위부를 영성하게 도왔다가 무슨 뒷말 나오려고.

(차 소좌에게) 만일을 대비, 내가 지원 나가겠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는 규남과 콧수염 중위.

36. 평야 도로/ 오후

도로를 달리는 지프차 안.
긴장감 흐르는 가운데, 운전하는 정 경무원. 그 옆좌석에 규남.
차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은 선글라스 반사로 뒤편을 살펴보면 -

뒷좌석, 손이 묶인 동혁.
그 옆 콧수염 중위 손에 들린 - 비닐 가방 증거물품, 그 속에 탈출지도.

규남, 선글라스 위치를 미세조정하여 비춰보면 -
누군가와 은밀하게 전화통화하고 있는 콧수염 중위,
한 순간 조소 어린 표정 짓더니 규남에게 스윙 핸드폰을 내민다.

규남

누굽니까.

콧수염 중위

알고 지내는 보위부 요원인데, 임규남 중사에 대해 물었더니..
(뻔히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규남

제 소속과 임무, 극비정보임을 모릅니까?

콧수염 중위

동무가 비밀 투성인 건 잘 알지만, 직속 상관이 누군지만 확인해주면 되겠는데?

규남

.....

콧수염 중위

왜? 이름 하나 못 외우나?

안 되겠다 싶은 규남, 전화를 받더니

규남

리현상 동지 바꾸라.

콧수염 중위, 순간 표정 바뀌고.
동혁, ‘어라?’ 규남을 바라본다.

규남

(전화통화) 아직도 술자리 안 끝났어? 팔자가 아주 쌍팔자구

나야, 누구는 썩고생 까는데.. 그래, 오늘 전연군단 행사에서
임무 주셨어. 확인됐어? (콧수염 중위를 의식하며) 기나저나
경무부 나부랭이하고 붙어먹는 넌 누구야? 모가지 꺾어 밀구
녕에 꼽기 전에 아가리 조심하라!

규남, 탁- 핸드폰 끊으면 -

37. 사단 행사장/ 오후

얼떨떨한 표정으로 핸드폰 내리는 사냥개 류대위.
저 편을 보면 -

상류층 여성들에 둘러싸여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현상.
메트로놈으로 박자 맞추듯, 절제된 호흡을 일정하게 뱉어내며
피아노 연주를 하는 현상. 몰입하여,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 아름다운 멜로디를 열정적으로 연주하면
모두 반했다는 표정. 그러나 선우월은 고개만 까딱까딱.

연주를 마친 현상에게 다가온 류대위, 핸드폰을 내민다.

38. 달리는 지프차 안/ 오후

사거리 근처, 도로를 달리는 지프.
정적을 깨고 울리는 핸드폰.
규남, 멈칫. 콧수염 중위, 핸드폰 받으면 -

<인터컷> 사단 행사장 안. 걸어나오며 핸드폰 통화하는 현상.

현상

잡소리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

지프차 안. 통화하는 콧수염 중위. 불안하게 바라보는 규남.

콧수염 중위

예, 지금 위치, 현풍리 십자거리 근처입니다.

규남, 핸드폰 낚아채며

규남

리현상 동지, 임무수행 중 무탈합니다.

39. 사단행사장 + 들판/ 오후 (전화교차)

사단 행사장 안, 현상.

현상

임규남이. 너 어찌려고 이러니.

들판. 끼익- 차 멈춰서고.

규남, 차에서 내려 콧수염 중위의 눈을 피해 걸으며 전화통화.

규남

하고 싶은대로 하는데 뭘 어쩔게 있겠습까.

현상

돌아오라, 최소한으로만 처벌받게 해준다.

규남

됐습다. 내 앞길, 내가 정했습다.

현상, 행사장을 빠져 나가려는데, 저 편에서 다가오는 선우월.

선우월을 그냥 스쳐 지나가며

현상

임규남. 너 갈 곳 없어.

규남

기래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기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태어난 게 억울하지 않겠습까.

행사장 앞, 도착하는 지프차에 탑승하는 현상, 출발하며 -

현상

너 어까지 도망칠 수 있을 거 같니?

규남

도망 아닙니다. 내 갈 길 가는 것이지.

탁- 전화를 끊으면 - 현상, 복잡한 심경.

규남, 돌아서는데 지근거리에 와 있는 콧수염 중위.
 통화내용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
 콧수염 중위, 손을 내밀면.
 규남, 핸드폰을 건네준다.

40. 달리는 지프차 안/ 해질녘

핸드폰을 왼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고.
 뒷좌석 콧수염 중위, 은밀하게 문자 확인하면 - 문자내용 '사단으로 연행하라'.
 저 앞, 사거리 다가오자

콧수염 중위

(운전석 정 경무원에게) 우측으로.

규남

좌측 아닙니까?

콧수염 중위

(대꾸하지 않고, 정 경무원에게) 우측.

더 이상 묻지 않는 규남.
 불편한 침묵 속에 지프차,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달리면 -

사단 근처를 알리는 입간판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스쳐 지나가고.
 점점 초조해지는 규남의 얼굴.
 흠칫, 정 경무원 허리춤에 꽂힌 권총을 쳐다보면.

콧수염 중위

(정 경무원에게) 야, 더 밝으라.

지프의 속력이 점차 빨리지며,
 사단 방향 길가의 나무들 - 그 그림자가 빠르게 규남의 얼굴을 스치고.
 규남, 힐끔힐끔 권총만 바라보면.
 그런 규남을 힐끔대는 콧수염 중위.
 이윽고 빠르게 스치던 나무 그림자 구간을 통과하면 -

순간 - 규남, 은밀하게 손을 드는데
 정 경무원의 권총을 먼저 뽑는 콧수염 중위의 손.
 콧수염 중위의 손목을 움켜쥐게 되는 규남.

콧수염 중위

이 새끼! (정 경무원에게) 야 잡아!

규남의 손목을 운전석의 정 경무원이 움켜쥐면.
그 틈에 콧수염 중위, 자신의 권총을 뽑아 규남에게 방아쇠 당기려하고.
동시에 동혁, 이마로 내리찍어 콧수염 중위를 공격!
가격당한 콧수염 중위, 자신의 권총을 떨어뜨리고 -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지프 안.

여전히 권총을 쥐고 있는 콧수염 중위,
규남의 목을 조른 채 방아쇠를 당기는데
동혁이 콧수염 중위를 밀쳐서, 총알이 빗나가며 탕-

그러는 사이 - 좌우로 요동치는 지프차, 다리 위에 진입하면 -

41. 다리 위/ 해질녘

동혁을 제압한 콧수염 중위, 정 경무원에게 권총을 간신히 내밀며

콧수염 중위

총 잡아!

정 경무원, 총을 잡아 규남을 향해 방아쇠 당기려는데
이때, 탕-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 운전석 정 경무원의 머리를 관통!
동시에 황-
다리 난간에 부딪히며 충격에 뒤집어지는 지프차.

정적 속 - 전복된 지프차에 갇힌 규남의 얼굴.
천천히 눈을 뜨고, 숨을 쉬며

규남

동혁아.. 김동혁..!

기절한 콧수염 중위 너머, 끄끙거리며 깨어나는 동혁.
규남, 빠져 나와 동혁을 꺼내주고
조각난 유리조각으로 동혁의 손에 묶인 줄을 끊어준 후, 두리번거리면 -

다리 위 저편, 떨어져 있는 증거물품들. 그리고 탈출 지도.

규남,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다가서려는데

탕-

또다시 날아오는 총알.

규남, 전복된 차량 뒤에 숨어 바라보면 -

저 멀리 - 다리 저편 언덕 위. 지프차 세 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가운데 지프차 상석, 핸드크림을 바르는 손, 여유있게 앉아있는 현상.

현상

(총성 소리에) ... 아이 시끄러.

차 앞에서 류대위와 보위부 요원들, 방아쇠를 당기는 손, 총을 계속 발사하면 -

차 뒤에 몸을 숨긴 동혁, 어찌지 못하고.

탕- 탕- 보위부 요원들의 총질 계속되는 가운데 -

규남, 전복된 차량 밑에 고여있는, 운전석 주변의 핏물을 얼굴에 묻히기 시작한다.

이윽고 총질이 멎으면,

총에 맞은 것처럼, 보란듯이 털썩 차량 옆으로 쓰러지는 피칠갑 규남.

죽은 듯한 규남의 그 얼굴을, 망원경으로 확인하는 현상.

황- 문이 닫히고.

쓰러진 규남을 향해 지프차 출발하면.

그 틈에, 쓰러졌던 피칠갑 규남.

다리 위에 떨어진 증거물품을 챙기기 위해 일어나 달리기 시작하고.

규남이 움직이자, 기가 차는 현상.

현상

저 개새끼.

달려온 규남, 비닐 가방 안에 떨어진 증거물품을 빠르게 챙기는데

보이지 않는 탈출지도 - 찾아보면, 바람에 나풀거리며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다가서려는데, 탕- 탕- 탕-

류대위와 보위부 요원들, 달리는 차에서 다시 총을 쏘고.

총알을 피해, 다리 난간 밑으로 몸을 숨기는 규남.

그러나 지프 차량들,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

규남, 헉헉헉 숨을 몰아쉬다가 한 순간 - 숨을 멈추고
총알세례 속에서 빠르게 달려가 기어코 탈출지도를 손에 넣은 후,
증거물품 비닐 가방 안에 지도를 넣고 동혁에게 달려가며

규남

뛰어! 뛰어내려!

그러나 다리 밑을 보며 망설이는 동혁. 그저 “규남이 형..” 이름만 부를 뿐.
그런 동혁을 안고 규남, 다리 난간 너머로 몸을 날리면 -

침병-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순간 흰거품들, 세차게 휘몰아치면 -

42. 다리 위/ 해질녘

이어지는 화면 가득 - 날아오는 물세례.
다가와 몸을 숙이고 화면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현상.

현상

.....

현상 앞에 쓰러져 있는 - 찬물을 끼얹어 깨운, 상처투성이 콧수염 중위.
현상, 손수건으로 세심하게 콧수염 중위의 얼굴을 닦아주며

현상

말해보라, 임규남이 탈주한 거 어디까지 보고했어?

콧수염 중위

정신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현상

잘못이라니, 잘했는데~

현상, 핸드폰 꺼내며 자리를 뜨면 -
탕- 콧수염 중위의 머리에 총을 쏘는 류대위.
보위부 요원들이 콧수염 중위 시체를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고.

목소리 가다듬으며 호흡을 고르는 현상, 장인에게 전화를 건다.

현상

(전화통화) 예- 사단장 동지, 위에는 아직 보고가 안 됐..

상대방의 전화 고함에 짜증이 나는 현상.

현상

(전화통화) ... 한 개 중대 병력만 지원해주시면.. 확실히 매듭
짓겠습니다.. 예예- 두 번 다시 럼려끼쳐 드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현상, 순식간에 싸늘한 얼굴.

어둑해지는 강가를 내려다보며 -

화를 삭이는듯하다 갑자기 혼잣말 욱설.

현상

임규남, 이 종간나새끼, 씨팔새끼, 내가 너 대가리를 박살내
고, 헛바닥을 뿔아서 신발갈창 만들어버리잖어, 에이씨팔, 종
간나새끼, 개대가리같은 새끼..

43. 강변/ 해질녘

규남, 눈을 뜬다.

부유물들이 쌓여있는 강가 하류.

힘겹게 고개 돌려 보면 - 기어서 다가오고 있는 동혁.

규남, “괜찮..”냐고 물으려다 멈칫.

겉에 질린 동혁의 얼굴 너머 총을 든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낸다.

몸을 숨기기 위해 수풀을 향해, 점점점 - 기어 들어가는 규남과 동혁.

총구를 겨눈 채 점점점 - 다가오는 총을 든 사내.

그 긴장된 상황을 주시하는 물가의 백로 한 마리.

백로의 시점으로 보면 -

다른 편에서 총을 든 또다른 실루엣이 수풀 쪽으로 다가오고.

간신히 수풀 속으로 몸을 숨기는 규남과 동혁, 숨을 죽이고 경계하면.

총을 든 두 실루엣, 교차하듯 규남과 동혁의 코 앞을 스쳐 지나간다.

다행이다 안심하려는 그 때.

수풀 속,

스윽- 규남의 머리를 향해 다가오는 권총 한 자루.

기척을 느끼고 규남, 날카로운 돌맹이를 손에 쥐고.
 백로가 부리로 물고기를 낚아채면—
 순간, 규남이 몸을 돌려 돌맹이로 상대를 찍어 내리려는데
 먼저 날아오는 상대방의 발차기. 그 바람에 돌맹이가 떨어지고,
 규남, 보면 — 권총을 겨누고 있는 강인한 인상의 여자.

리더 여자

어느 부대에서 보내쎄.

규남, 살펴보면 —
 떠돌이 행색의 남녀 20여명, 총과 칼을 들고 있다.

규남

... 류랑민이지? 우리도 쫓기는 신세야, 동무들과 똑같아.

리더 여자

어디서 헛가다 부리고 있어? (유랑민들에게) 처리하라.

리더 여자, 돌아서면 — 칼을 빼들고 다가오는 유랑민들.
 동혁, 바닥에 엎드려 짹짹 빌며

동혁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총살 당할 뻔했다가 현풍리 구류장에
 서 죽기살기로 빠져 나온 겁니다!

흠칫하는 유랑민 여자(상구 누나), 몸을 낮춰 동혁과 얼굴을 마주하며

상구 누나

상구라고, 봤니?

동혁

예?

리더 여자

구류장에서 최상구 봤냐고.

동혁, 생각해보지만 모르는 이름인 듯.
 규남, 동혁을 향해 입모양만 ‘그냥 안다해라’ 하면 —
 키가 큰 소총녀, 칼을 규남 목에 겨누며

소총녀

(규남에게) 개수작 부리지 말고 (동혁에게) 상구 봤어? 못 봤어?

동혁, 순진무구한 얼굴로

동혁

그런 이름 모릅니다.

규남

답답이 새끼!

소총녀와 유랑민들, 두 사람을 찌르기 위해 칼을 높이 드는데

동혁

더벅머리...?

멈칫하는 칼을 쥔 손들.

동혁을 보는 상구 누나.

동혁

옆방에 더벅머리.. 죽지 말자.. 죽지 말자.. 구원을 받을 거다..

벽을 보고 중얼중얼대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리더 여자

... 어케 잡혀왔다 그랬어?

동혁

기도를 하고 숨어서 책을 보다 발각되었다고.

상구 누나

상구... 살아있다!

눈물 펴고 맺히는 상구 누나.

기뻐하며 한편으로 서러워하며 흐느끼기 시작한다.

유랑민들, 상구 누나에게 다가가 서로서로 안아주고 등을 토닥토닥.

그 모습을 짝하게 바라보는 규남.

44. 동굴 내부/ 저녁

바위산 중턱에 위치한, 동굴 입구를 수풀로 가려 막는 유랑민 1,2.

- 동굴 내부.

동혁, 모닥불 앞에서 돌맹이 옮겨가며 유랑민들에게 현풍리 구류장 구조를 설명해준다.

동혁

예에 그러니까.. 여기가 현풍리 경무부라고 한다면, 여기 지하실에 구류장, 출입구는 물 샬 틈 없이 경계가 삼엄한데, 어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빼잉 돌아서, 이 지점에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리더 여자

... 창문?

소총녀

(빼딱) 잠겨있겠지.

동혁

아닙니다, 보초가 담배 필 때 열어놓습다! 내 봤습다! 두 눈으로 푹푹히 봤습다!

규남

흠쳐 보는 것은 이 동무가 전문갑니다. 확실할 겁니다.

리더 여자

(유랑민들에게) 래일 구하러 간다.

동혁

(근심 어린 상구 누나에게) ... 희망을 가지십시오.

상구 누나

... 고맙습니다.

동혁, 상구 누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푹.

동혁

... 배고픔니다.

(시간 경과)

유랑민 꼬마 셋, 입을 하아 벌린 채 바라보면 -

걸신 들린 것처럼 허겁지겁 죽을 먹는 동혁, 순식간에 한 그릇 푹딱.

동혁

... 행복합니다.

규남, 자신의 죽을 동혁에게 건네주고 탈출지도만 바라보는데
슬그머니 다가오는 꼬마들, 증거물품들 중 카세트 라디오 가리키며

유랑민 꼬마1

이거 틀어봐도 돼요?

규남이 미소 지으며 고개 끄덕하면,
‘우~아!’ 신난 얼굴로 카세트 라디오를 만지는 꼬마들.
전원이 켜지며, 지직 지직- 카세트 라디오에서 복한 방송이 흘러 나온다.

라디오 (v.o)

... 위대한 원수님께서, 이틀 후에 닥칠 폭우를 대비하라 각별
히 명령을 하시며 그 어떤 피해도 없을 것이라 말씀들..

규남, 바뀌지 않은 일기예보를 듣고 동혁을 스윽 쳐다보면

동혁

(죽을 먹으며) 예보가 틀린 게 어디 한 두번입니까. 오늘밤에
폭우가 쏟아질 겁니다.

규남

(심란해하며) 빨리 먹고 일어나자.

라디오에서 촌스러운 배경음악과 함께 성우의 목소리 이어진다.

라디오 (v.o)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 것이 아
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 혁명의 최후승리를..

유랑민 꼬마들, 방송을 들으며 고개 끄덕끄덕.
전전방송에 귀 기울이는 꼬마들을 규남이 물끄러미 바라본 후,

규남

음악 한 번 들어볼래?

규남, 증거물품 중에서 ‘행복하자’ 공테이프 넣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카세트에서 흘러 나오는 <양화대교>.
건반과 바이올린의 도입부 반주가 동굴 안에서 하울링 효과를 내고.

신기하다는 듯 음악을 듣는 꼬마들의 눈망을 하나 하나.
소총녀와 유랑민 몇은 이 무슨 해괴한 노래인가 싶은 표정, 그러다

노래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 아프지 말고 오오 아프지 말고 ~

규남, 둘러보면 -

리더 여자, 상구 누나, 소총녀, 유랑민들, 모두 각자의 감상에 젖어 애잔한 얼굴들.
서로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데,

동굴 입구 쪽을 보며 서서히 표정 굳는 규남.

입구 쪽에서 소총남, 리더 여자에게 다가가 뭔가를 보고하면.

탁- 카세트 플레이어를 끄는 규남의 손.

동시에 모닥불에 흙이 덮어지며 - 순식간에 찾아오는 어둠과 적막.

45. 동굴 근처/ 밤

캄캄한 숲, 뽕뽕한 나무들 사이로 붉은 점 하나가 획-

리더 여자와 소총남 그리고 규남, 그 점을 응시하면.

잠시 후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는 붉은 점들.

저 멀리 산 밑에서 수많은 후레시 불빛들,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다.

리더 여자

뭔 대역죄를 지었기에 이딴 산꼭대기까지 쫓아오나?

규남

미안하게 댔습다.

리더 여자

(소총남에게) 이동한다.

일사불란하게 동굴에서 나오는 유랑민들, 꼬마들을 챙기는 상구 누나.

리더 여자와 소총녀, 선두에 서서 동굴 위편 바위를 넘으려는데 멈칫 -
산 정상, 언덕에 12명의 선발조 실루엣들이 진을 치고 있다.

위 아래로 막힌 상황에 당황하는 규남과 동혁, 유랑민들.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

46. 산 밑 + 동굴 앞/ 밤

산 밑 베이스 캠프에서 현상, 지도를 보며 지시.

현상

(무전) 선발조, 룡선 따라 전진.

- 산 속, 지시에 따라 커다란 바위에서 내려오는 류대위와 선발조.

현상

(무전) 9시 방향 수색.

- 류대위, 왼편을 보면 동굴 앞. 무성한 수풀들 뿐.

류대위

(무전) 좌측, 막혀 있습니다.

현상

(무전) 판단을 니가 하니?

47. 동굴 안 + 산 밑/ 밤

수풀 열리며 동굴 안으로 들어서는 후레시 불빛.

류대위, 권총에 부착된 후레시 불빛을 확확- 비춰보면.

총구가 가리키는 곳,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다.

류대위

(무전) 아무것도 없다.

현상

(무전) ... 안으로 전진.

류대위,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

권총 총구에 닿아 티잉- 티잉- 소리를 내면 -

- 산 밑, 눈을 감은 채 예민한 얼굴로 무전기에 귀 기울이는 현상.

티잉- 티잉- 소리의 간격이 빨라지다가, 한 순간 들리지 않으면 - 눈을 뜬다.

현상

(무전) 멈춰.

걸음 멈추는 류대위.

현상

(무전) 위에 뭐가 있니?

류대위, 후레시 총구 방향을 비춰 올려보면 -
동굴 한켠, 작은 구멍 하나.

48. 산 밑 + 산 중턱, 숲속/ 밤

‘탈주범 3시 방향, 3시 방향으로 도주!’ 류대위의 무전 소리 흐르면 -

현상

(무전) 추격조, 우측 방향 일제 전진.

산 밑에서 올라오던 추격대, 일제히 우측으로 방향을 꺾고.

현상

(무전) 좌우 협동동작, 전진.

좌우로 나뉘어, 전진하는 추격대.

그들 중 몇, 손에 든 후레시를 확확- 비춰보면.
불빛이 닿는 곳 너머 몸을 숨긴 규남.
근처 수풀에 숨은 동혁, 소총남 그리고 소총녀와 리더 여자.

리더 여자, 보면 -
추격대 하나, 커다란 바위 앞에서 걸음 멈추고.
그 바위 뒤편에 숨은 상구 누나와 꼬마들, 유랑민들.
숨 막히는 정적 속,
리더 여자, 확- 돌멩이를 나무 위로 던지면 까마귀 소리 들리더니 날아가며 푸드득.
추격대, 뒤를 돌아본 후 그냥 바위를 스쳐 지나가는데.

커다란 바위 밑, 꼬마1.
안도의 한숨을 쉬다가, 그만 빠직- 나뭇가지 밟으면 -

후레시 불빛 추격대들, 몸을 돌리고.
꼬마1, 겁에 질려 떨기 시작하고.
당황하는 리더 여자, 규남과 동혁. 칼을 빼드는 상구 누나.

몸을 돌린 추격대, 꼬마가 있는 지점을 향해 총구를 겨눈 채 다가서면.
 동시에 추격대를 향해 리더 여자와 소총남, 소총녀 - 총구를 겨누는데.
 순간 확- 소총남의 총을 낚아채는 규남.
 그 사이, 바위 가까이 추격대가 다가오면 -
 꼬마1, 울음 터트리기 일보 직전!
 이때 탕 탕 탕 들려오는 총소리 -
 추격대, 몸을 돌려보면 - 저 편, 총구의 선명한 불꽃들.
 규남, 우뚝 솟은 언덕 위에 서서 보란듯이 허공을 향해 총을 쏘아대면 -

49. 산 밑/ 밤

현상에게도 그 총성이 들리고, 산을 보면 총구 불꽃이 번쩍 번쩍.

<인터컷> 방아쇠를 당기는 규남의 손, 팔각- 총알이 떨어졌고.
 총을 버리는 규남, 동혁과 함께 언덕 너머로 달려나가면 -

(류대위의 무전소리)

탈주범 발견, 10시 방향, 10시 방향!

현상

(무전) 후발대 투입, 상하 협동동작 전진.

50. 산비탈/ 밤

여기저기 불규칙하게 박혀있는 나무 기둥들이 획획, 눈앞으로 다가온다.
 아슬아슬 피하며 거침없이 달리는 규남과 동혁.
 빗발치는 총성과 함께, 총알이 나무기둥에 날아와 박히고, 그 파편이 눈앞에 튀고!
 빠르게 내려가던 규남과 동혁, 보면 -
 산 밑에서 올라오는 또다른 추격조 불빛들.
 위아래로 막힌 상황에 당황하는 규남과 동혁.

51. 산 언덕/ 밤

유량민들, 피신하는 가운데
 리더 여자, 계속되는 총성에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추격대 불빛들, 한 지점을 향해 포위하기 시작한다.

52. 포위된 숲 + 계곡 근처/ 밤

빗발치는 총알 세례 속에서,
빠르게 숲길을 달리는 규남과 동혁.
뒤편으로 - 쫓아오는 후례시 불빛들, 총구 불꽃들 보이고.

규남과 동혁, 죽어라 달리는데
한 순간 탕-
동혁, 쓰러지고 먼저 달려가던 규남이 돌아와 보면.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동혁, 철철철 피를 흘리고.
규남, 동혁을 안은 채 계곡 아래로 내려가면 -

다가온 추격조, 선두에 선 류대위. 산비탈을 내려가면,
계곡 근처. 그 바로 밑 -
몸을 숨긴 규남과 동혁.
동혁은 총상 입은 고통을 이 악물고 참고 있고.
규남은 숨을 죽인 채 땀을 뻘뻘.

규남 오른편 바로 윗 지점까지 류대위가 다가오면.
규남과 동혁, 파여진 언덕 밑 안쪽으로 더 숨으며 왼편으로 미세하게 움직이려 하는데
바로 왼편까지 다가온 추격조의 발이 보이고.
품에서 만년필을 꺼내 칼처럼 쥐는 규남,
극도로 긴장된 일촉즉발 -

이때 탕 탕 탕, 날아오는 총알들 - 추격조를 향한 위협사격.

그러자 걸음 멈추고 두리번대는 추격조들과 류대위.
돌아보면 - 저 편, 숲속의 선명한 불꽃들 보인다.

류대위

(무전) 탈주범 3시 방향, 3시 방향!

- 반대편 숲 속.
총을 든 리더 여자와 소총남녀, 위협사격을 이어가면 -

53. 산 밑 + 계곡 부근/ 밤

현상, 건너편 숲 속의 선명한 불꽃들 바라보며 크게 분노.

현상

(무전) 컷구멍들 틀어 막았어? 탈주병 둘이 널 충성이 아니잖나!

- 계곡으로 돌아오는 후레시 불빛들.
그 풍경을 뒤로 두고 - 화면 앞으로 스윙 지나치는 규남과 동혁, 달아나면.

54. 숲 속/ 밤

어딘가를 향해 이동하는 리더 여자와 유랑민들.

소총녀

긴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네?

리더 여자

... 래일을 준비하러 간다.

“상구 오빠 구하러 가는 거 맞지?” 물으며 상구 누나와 미소 짓는 꼬마1.
손에 ‘행복하자’ 적힌 공테잎 들려있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리더 여자와 유랑민들의 모습 위로 피아노곡 선행되면 -

55. 산 밑/ 밤

나지막하게 음악 틀어놓고 지프차 안에서 화를 삭이고 있는 현상.

현상

임규남, 이 쌍간나 새끼.. 개새끼..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이때 걸려오는 핸드폰, 받으면 -

(선우월)

... 연주 잘 들었어.

현상

용건만 말하라.

(선우월)

실력이 옛날 같지 않더라야. 국제 콩쿠르 주름잡던 리현상이
어디 두고 다니나.

현상

끊어라, 나 일하고 있어.

(선우월)

무슨 일?

현상

집 나간 개새끼 잡고 있어.

차 안에 흐르는 피아노곡을 들었는지,

(선우월)

... 잊지 못하는 거지? 로씨야(러시아) 시절의 모든 것들. 상트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확- 전화를 끊고, 탁- 음악을 끄는 현상.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 저 편에서 류대위와 추격대가 다가온다.

잠시 후 -

개패듯 류대위에게 폭력을 가하는 현상,

숨을 헐떡거리는 얼굴에 피가 튀겨도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56. 산 이동 몽타주 + 오솔길/ 밤

구름을 헤치고 모습을 드러내는 달빛.

그 달빛 아래 산을 넘어가는 두 개의 점.

앞서 걷는 규남 뒤로, 풀썩 동혁이 쓰러진다.

규남이 다가가보면, 총상을 입어 김붉은 핏물에 흠뻑 젖은 동혁의 전투복 바지.

규남, 자신의 군복 소매를 찢어 동혁의 총상 부위를 묶어주고.

다시 앞으로 걸어가며, 힘겹게 산을 넘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

규남

... 힘들지?

동혁

일 없습니다..

규남

거진 다 왔다, 기러치?

동혁

다 왔다고.. 분대장 동지가 열 두 번도 더 말했습니다..

규남

그래그래, 긴테.. 왜 우리는 부대로 가야 하니?

동혁

모르는 길로 가면 지뢰밭아 죽는다고.. 취사장까지만 가면 남
쪽에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로.. 분대장 동지가 열 두 번도
더 말했습니다..

두 사람, 오솔길로 접어들며

규남

그래그래, 긴테..

동혁

그만 좀 물어보시라요.. 걷는 거보다 말하는 게 더 힘듭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동혁에게 계속해서 말을 붙이는 규남.

규남

동혁아.

동혁

예..

규남

남조선 가면 뭐가 제일 먹고 싶니?

동혁

(힘없이 간신히 대답) ... 고기..

규남

고기도 종류가 많잖니? 소고기? 돼지고기?

동혁

닭고기..

규남

닭고기도 종류가 많지? 끓여먹는 백숙부터, 고춧가루 팍팍 닭
볶음, 얼음동동 초계탕도 있고..

동혁, 멍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면 -
동혁의 머리 위 여백, 어둠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이 떠오른다.

동혁

남조선의 닭튀김.. 먹고 싶습니다..

규남

야아~ 치킨! 후라이 반!

동혁

양념이 반!

규남

곁들여 맥주 한 고뿌 짜악 들이키면, 까아~ 맛있겠다!!

침을 꿀꺽, 황홀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며 규남이 웃는데.
동혁이 툭.

동혁

어머니.. 어머니가 해주신 밥 먹고 싶습니다.

규남

... 아 새끼, 어머니가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았어? (웃으며)
기래, 어머니 밥 먹으로 가자, 다 왔다!

힘을 내며 걸어가는 두 사람.

57. 지프차 안/ 밤

현상, 만신창이 류대위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현상

류대욱이, 너는 군인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류 대위

(겁에 질려) 아닙니다!

현상

너 뭐하고 싶었어?

류 대위

...

현상

가라. 가서 그거 하라.

류대위

잘못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현상, 벌벌 떠는 류대위를 품에 안으며

현상

기래, 현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라.

58. 부대 전경/ 밤

산에서 내려다 본 부대 전경.

대대건물과 연병장, 주차된 트럭들 등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고요한 풍경이다.

59. 울타리 초소 부근/ 밤

외판 초소 벽면에 붙어있는 - 울타리 초소 배치도.

남동쪽 끝에 ‘현위치’ 표시되어 있고 근처에 ‘취사장’ 표시도 보인다.

배치도 벽면에 기대어 잠든 고참 보초병.

근처에 부사수 보초병1, 적막을 깨는 타닥- 소리에 밖으로 나간다.

초소 밖으로 나와 보초병1, 둘러보면 -

군부대 접근금지 경고문과 철조망 뿐, 특이사항 없어 보이는데.

이때 쿠우웅- 천둥소리 들리더니 쏟아지는 굵은 빗방울.

보초병1, 비를 피해 초소 안으로 들어가면 -

그 너머 어둠 속, 땅에 붙어 포복 이동 중인 점 두 개.
규남과 동혁, 비를 맞으며 저 앞 소형 비닐하우스를 향해 숨죽인 채 이동한다.

60. 빨래건조 비닐하우스/ 밤 (비)

빨래 전투복들 걸린 건조 비닐하우스 안.
순식간에 휘몰아치는 비바람에 비닐 필러필러, 내리는 비 점점 강렬해지는 가운데
안으로 들어오는 규남과 동혁, 참았던 숨을 헉헉 뱉어내며

규남

땅 뒤집어지면 지도가 쓸모 없다, 빨리 가자.

규남, 지친 동혁을 끌고 비닐하우스를 나가려는데
요란하게 비상 사이렌 소리가 웅--
당황하는 규남과 동혁, 보면.
비닐하우스 언덕 밑에 위치한 막사에서 하나 둘 불이 켜지더니
밖으로 군인들이 뛰쳐 나온다.
그들 중 팬티만 몸에 걸친 군인들 몇, 비닐하우스 안으로 달려 들어오고,
전투복 챙겨입으며 “또 무슨 비상이 걸린 거네?!” 불평들.
그들 너머 비닐하우스에 찢어진 구멍이 보이면 -

61. 비탈 언덕 - 중대 막사 앞/ 밤 (비)

몸을 낮춘 채, 언덕 비탈길을 이동하는 규남과 동혁.
이동하는 두 사람 너머 비상 걸린 중대 전경이 보이고.

언덕 비탈길에 계속해서 쏟아지는 비.
허벅지 총상에 힘이 없는 동혁, 찢뜩찢뜩 걷다 순간-
질퍽해진 흙비탈에서 미끄러져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

규남, 돌아보고 -

쿵- 중대 막사 앞, 집합한 병력들 복판에 떨어지는 동혁.
쓰러진 채, 겁에 질린 얼굴로 둘러보면 -

중대 병력들, 다른 중대 소속이겠거니 동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중대 앞으로 갔!” 소리와 함께, 집결한 중대 병력들 앞으로 이동하고.
그 바람에 덩그러니 남겨진 동혁을 향해

“야 이 새끼야, 이동 안 하네?” 중대장 고함 소리 들려오고.
그러나 도저히 어찌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은 동혁.
앞에 있던 중대장, 동혁에게 점점 다가오는데 -

이동하는 행렬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누군가.
동혁, 보면 - 어느새 언덕에서 내려온 규남, 동혁을 일으켜주고.

중대 행렬에 합류해 이동하기 시작하는 두 사람.
줄지어 이동하며, 철모와 소총을 배분 받으면 -

62. 연병장/ 밤 (비)

불을 밝힌 연병장 안으로
진입하는 중대 행렬, 척척- 각잡고 다리를 높이 드는 북한식 행진 걸음.
동혁, 아픔 참으며 총상 입은 다리를 높이 들고, 그 옆에서 규남은 사방주시.
연병장 가운데에 도착하는 군화발들, 척- 일제히 걸음 멈추면 -

추적추적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 4개 중대, 많은 수의 대대병력들.
(규남을 체포했던) 같은 소대 박소위, 저 편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또라이 눈빛.
행렬의 오와 열을 맞추고 있으면 - 규남과 동혁, 박소위의 눈을 피하는데

안으로 들어서는 지프차 세 대와 군용 트럭들.
멈춰서면 - 만신창이가 된 류대위, 문을 열어주고 차에서 내리는 현상.
단상에 올라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한다.

현상

민경대대 동무들! 나는 국가보위성 소좌 리현상입니다! 나의
런속적 과오로 인해 탈주범이 둘씩이나 발생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박소위의 표정.
박소위를 주시하던 규남, 시선을 피하는데 -
행렬 속, (멧돼지 고기 나누어 먹었던) 규남의 분대원들. 규남을 뵈고 있다.

현상

그러나! 탈주범들은 이곳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 것
이고, 결국 죽음이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무들의 전광석화적 도움이 필요한 바, 탈주범의 시체를 가
져온 동무에겐, 영웅 칭호를 수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영웅 칭호 수여’ 라는 말에,

복종하듯 우렁차게 “예!” 대답하는 - 박소위, 분대원1,2, 대대병력들.

대대장

1중대 2중대, 부대 수색! 3중대 4중대, 전방철책으로 이동한다, 이동!

이동하는 행렬에 섞여 멀어져가는 규남과 동혁.

바라보며 - 표정이 복잡해지는 분대원 1,2. 두 사람 앞에 스윽 나타나는 박소위.

63. 막사 앞/ 밤 (비)

행렬들, 막사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하고.

코너를 돌면 - 캄캄한 어둠.

잠시 멈추어 어둠 속에 숨은 규남과 동혁,

반대편 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하면 -

64. 막사 위 언덕 - 취사장 앞/ 밤 (비)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 다시 언덕 위로 올라오는 규남과 동혁.

지칠대로 지쳐, 두 사람의 숨소리만 헉헉헉 크게 들려오고.

규남, 소총을 들고 힘겹게 이동하는데 멈춰 돌아보면

저 멀리 뒤흔친 동혁, 그러나 이를 악물고 동혁도 힘을 내며 다시 다가오고.

수풀을 통과하면 - 저 앞에 보이는 취사장.

규남과 동혁, 다가서다 멈칫.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면 - 부대 추격조들, 스쳐 지나가고.

다시, 취사장 앞으로 다가서는 규남과 동혁.

순간 기척을 느끼는 규남, 확- 총을 겨누며 돌아서면 -

분대원 1,2 와 눈이 딱 마주치고

동시에 총을 겨누게 된 규남과 분대원 1,2.

어찌지 못하고 숨만 헐떡이는 동혁.

동혁의 허벅지 총상을 보는 분대원1.

서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두 사람을 겨누는 총구가 한 순간 내려가며 -

분대원1

... 규남이 형, 언능 가라요.

분대원2

소대장 읍니다, 어서 가십시오.

분대원 1,2가 못 본 척 멀어져가면 -

65. 대대 상황실/ 밤 (비)

사열받듯, 펼쳐져 있는 물품들 -

수통, 타들어간 야삽 그리고 책 '위대한 탐험가, 아문센'.

대대장

추가로 나온 압수물품들입니다.

담배를 뽕뽕 피우는 현상, 아문센 책에 시선 멈추는데

이때 걸려오는 핸드폰. 현상, 받으면 -

1사단장

(전화통화) 어케 됐어?

현상

(전화통화) ...

1사단장

(전화통화) 야! 이 중간나 새끼야! 몇 번 말하니?! 로력영웅이
탈주범인 게 알려지면 다 죽는 기야! 알간?!

현상

(전화통화) 직접 잡아 처리하겠습니다!

현상이 핸드폰을 탁 닫아버리면 -

66. 취사장 - 취사장 앞/ 밤 (비)

아무도 없는 취사장 안.

절뚝거리며 힘겹게 의자를 밟고 식탁 위로 간신히 올라가는 동혁.

규남 또한 지친 얼굴, 그러나 힘을 내어 식탁 끝까지 달려가 벽면 선반을 향해 점프,
하지만 닿지 못해 그대로 쿵- 바닥에 떨어지는 규남의 얼굴.

동시에 선반 집기들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내면 -

- 취사장 앞. 추격조를 이끌던 박소위, 돌아보고.

규남, 숨을 헉헉거리며 일어나는데 이때 밖에서

박소위

(소리치는) 임규남! 나도 영웅 한 번 되야겠어!

당황하는 규남과 동혁.

취사장 밖. 쿵쿵 - 잠긴 문을 발로 차는 박소위.

추격대들 문 앞에 달라붙어 문을 부수기 시작하고.

주저하는 분대원 1,2에게 박소위가 “뭇들 하고 있어? 뽀수라!” 소리치면.

분대원 1,2 어쩔 수 없이 문 앞에 붙어 쿵쿵-

취사장 안. 점점 부서지는 문.

그런데 그 문을 향해 돌진하는 규남.

가까이 다가서며, 구석에 있는 취사용 등유통을 집더니

문 앞에 등유를 흘리고,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면 -

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확- 번지는 불길.

박소위

이 꼴사나운 새끼!

67. 환풍구/ 밤 (비)

소총을 끌어안은 채 환풍구를 힘겹게 통과하는 규남.

규남 앞에서 동혁,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기어가고.

68. 취사장/ 밤 (비)

뒤늦게 취사장 안으로 들어서는 박소위와 추격대.

뚝개 뜯겨진 환풍구를 확인하고

박소위

(무전) 탈주범, 도주! 전방 14초소 룡선 방향!

69. 전방초소 가는 길/ 밤 (비)

박소위의 무전소리, 반복되어 들리는 가운데 -
 한 방향을 향해 돌진하는 부대 추격대.
 한 순간 반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질주해오는 지프차.
 그 안에 현상, 류대위가 펼친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때 걸려오는 핸드폰 진동음. 현상, 번호를 확인하고 받지 않으면 - 우루루쾅쾅!

70. 취사장 뒤편 언덕 - 전기철책 앞/ 밤 (비)

천둥소리와 함께 폭우가 더욱 강렬하게 쏟아지고.
 작은 굴뚝 위로 빠져나오는 실루엣 둘, 규남과 동혁.
 빠르게, 언덕에서 내려와 덩불 속으로 들어가 철책 구멍을 통과한 후 -
 철책 밖 낙엽 구덩이 속에서, 얼굴 팍 내밀며

규남

됐다, 됐어, 다 왔어, 이제 못 쫓아온다!

하는데, 보이지 않는 동혁.
 엄습하는 불안. 규남, 돌아보면,
 전기철책 너머 - 아직 넘어오지 않은 동혁, 뭔가를 찾는 듯 두리번두리번.

규남

(다급) 김동혁!! 뭐해??

저 편에서 동혁, 그저 땅바닥만 두리번두리번.

71. 중앙 초소/ 밤 (비)

그 사이 - 지프차에서 내리는 현상, 계단을 따라 중앙 초소로 올라가면.
 철책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중앙 초소 위, 서치라이트 불빛이 평 -

72. 전기철책 앞/ 밤 (비)

순간 빛을 피해, 낙엽 구덩이 속에 숨는 규남.
 이곳저곳 비추며 이동하는 서치라이트 불빛, 철책 안쪽을 비추면 -

철책 안쪽. 아슬하게 서치라이트 불빛을 피하는 동혁, 땅을 보며 두리번두리번.
 흙탕물에 떨어져있는 - 체포될 당시 떨어트렸던 - 목걸이 보인다.
 동혁, 목걸이를 손에 쥐고 돌아서는데
 평- 또다른 서치라이트 불빛이 정면으로 쏟아지며 발각!

73. 중앙 전방초소/ 밤 (비)

중앙 초소 꼭대기 층.
 류대위, 저격총을 꺼내 현상 앞에 놓아주면.
 스코프에 눈을 갖다대는 현상.

스코프 시점 - 서치라이트가 환하게 비추고 있는 곳.
 동혁이 서치라이트 피해 달아나지만 절뚝거릴 뿐, 독 안에 든 쥐.

현상, 방아쇠를 당기려는데 - 이때 도착하는 핸드폰 문자.
 선우월. '행복한지 묻고 싶었어'.

문자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는 현상.
 다시, 스코프에 눈을 갖다대고, 방아쇠 당기면 -

74. 전기철책 앞/ 밤 (비)

탕- 복부를 관통하는 총알.
 쿵- 쓰러지는 동혁.

규남

동혁아!!

규남, 덩불 구멍에서 나와 초소 방향으로 위협사격하며 동혁 곁으로 돌아오면.
 동혁, 피를 철철 흘리며 봉어처럼 숨을 쉬면서

동혁

형.. 이거.. (목걸이 내밀며) 우리 엄마 생일 선물..

규남

직접 가서 드리라! 어서 가자!

이때 탕탕탕-
 저 편 언덕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부대 추격대, 총을 쏘며 다가오면 -

규남, 동혁을 안고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현상, 저격총 스코프로 규남을 찾지만 보이지 않고.

오가는 서치라이트 불빛들을 등지고 -
 규남, 철책 구멍을 빠져 나오면
 의식을 잃어가는 동혁, 규남에게 목걸이 내밀며

동혁

규남이 형.. 내가 죽게 생겨서.. 꼭 대신...

규남

김동혁! 정신차려!

동혁

약속해 주십시오.. 못 드리면.. 나중에 엄마 볼 먼목 없어..

규남

가자! 갈 수 있어!

이때 두 사람을 찾던 서치라이트 불빛이 비추고.

동혁

항상 짐만 되서.. 미안합니..

탕- 총을 맞는 동혁. 규남에게 피가 튀고,
 눈물 가득 미소 지은 채 죽는 동혁.
 비 잦아들고, 동혁의 손에서 목걸이 떨어지면 -
 규남, 서치라이트 불빛이 비추고 있지만 멍한 얼굴.

75. 중앙 전방초소/ 밤

비가 멈추고 - 찾아오는 적막.
 현상, 저격총 스코프로 고개 숙인 규남을 응시하며
 방아쇠를 당기려는데

현상의 스코프 시점 - 고개 들어 현상 쪽을 뚫어져라 보는 규남.
 한 치의 미동도 없이, 쏠 때면 쏘보라는, 독기 가득한 얼굴.
 규남과 눈이 마주치자, 멈칫하는 현상.

76. 전기 철책 앞 - 민동산/ 밤

규남, 정면으로 쏟아지는 새하얀 빛을 응시하며
 떨어진 동혁의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왼쪽 가슴팍 걸주머니에 목걸이를 꼭 넣은 후,
 소총을 들어, 서치라이트 불빛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면 평- 깨지는 서치라이트.

- 전방초소. 방아쇠 당기는 현상, 그러나 빗나가고.

순식간에 찾아오는 칠흙같은 어둠 속에서,
 철책 앞까지 도착한 부대 추격대들의 탕탕탕탕탕 - 뒤늦은 총질 불꽃 세례.

잠시 후 총성 멈추면, 또다른 서치라이트 불빛이 철책 부근을 비추는데
 대대 추격대 뿐, 보이지 않는 규남.

획- 서치라이트 불빛, 돌아가며 찾기 시작하고.
 규남이 보이지 않자 분노하는 현상.

쿵쿵쿵, 심장이 박동하는 것처럼 북소리 흐르며 -

77. 갈대밭/ 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갈대밭.
 품에서 나침반을 꺼내 남쪽 방향으로 직진하며, 짐승처럼 숨을 몰아쉬는 규남.

빠르게 돌진하는 규남 뒤편으로 -
 평 평 커지며 더 많아지는, 갈대밭 위 서치라이트들.
 좌우로 오가던 서치라이트 불빛 하나, 규남을 발견하면 -

- 규남을 조준하는 스코프 시점.
 현상, 절제된 호흡을 하며 방아쇠 당기려는데

돌진하듯 나아가던 규남.
 걸음 멈추고, 소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기면 -
 탕- 총소리와 함께 평- 꺼지는 서치라이트.

시야에서 규남을 놓친 현상, 보면 -
 좌우로 길게 뻗은 철책 라인 곳곳의 서치라이트 불빛들, 하나 둘 총에 맞아 꺼지고.
 다시 탕- 소리와 함께 갈대밭 어둠 속에서 불꽃 하나가 튀면 -

현상, 흔들림 없이 불꽃 튼 방향으로 저격총을 들고, 탕 -

규남 옆으로 총알이 박히고.

규남, 중앙 초소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데, 딸각- 총알이 떨어졌다.

당황한 규남, 보면 - 저 편 중앙 초소에서 불꽃이 번쩍.

순간, 몸을 날리지만 규남의 팔을 스치고 지나가는 총알.

동시에 쿵- 바닥으로 쓰러지는 규남.

규남 앞으로 떨어지는 산산조각 난 나침반.

- “철책문 열렸습니다.” 류대위가 말하면 현상, 자리를 뜨고.

쓰러진 규남, 눈 앞에 떨어져있는 - 산산조각 난 나침반.

손에 쥐지만 고장 나 있고, 갈대밭 속에서 방향을 몰라 망연자실.

이때 들려오는 치지직- 소리.

쿵- 쓰러지면서 충격 때문인지 품 안에서 켜진 라디오를 순간 켜다가 다시 켜다.

새벽방송 라디오 (v.o)

(치지직) ...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치직) .. 슬퍼하거나 노
여워하지 말라.. (치직)

규남,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남쪽’ 방향을 잡은 후, 달리기 시작하면 -

<인터컷> 철책 통문이 열리고, 뒤쫓는 지프차 세 대.

그 안의 현상, 흥분한 얼굴 위로 -

라디오 (v.o)

...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78. 평야/ 밤

비무장지대, 아름다운 랜드스케이프 안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규남.

고독한 질주를 하는 규남의 모습 위로 -

라디오 (v.o)

...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사지절단 된 멧돼지 사체들이 즐비한 지점에 도착하면 -

79. 지뢰지역/ 새벽

‘지뢰’ 꽃말 철조망을 넘는 규남, 보면 -
 푸름스름한 새벽 하늘 아래, 밤새 내린 폭우에 쓸대밭이 된 지뢰지역.
 파헤쳐진 땅 이곳저곳, 쓰러진 지뢰표시 나뭇가지들, 형상을 드러낸 수많은 지뢰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얼굴, 멈추지 않고 직진하는 규남.
 카세트 라디오에서 힘차고 밝은 음악, 흐르기 시작하고 -
 뒤편으로 멧돼지 한 마리가 빠르게 지나가다 지뢰를 밟았는지 펑!
 그러나 감정의 동요없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며

규남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달리기 시작하는 규남.

- 뒤편. ‘지뢰’ 꽃말 앞에 도착하는 지프차 세 대.

류대위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나 듣지않고 혼자 차에서 내리는 현상.
 저 앞에 가는 규남을 향해 미친듯이 총을 쏘면 -

총알이 지뢰밭에 박히며, 여기저기 지뢰가 펑 펑 펑 터져도 -
 앞만 보며 질주하는 규남.

- 지뢰지역으로 들어서는 현상.

류대위

소좌 동지! 안 됩니다!

소리치지만, 직진하는 현상.
 그러자 류대위, 지뢰지역으로 들어서는데 - 현상 뒤편에서 펑!
 지뢰 밟아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된 류대위. 바라보며 현상, 멍한 얼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점점 커지며
 멈추지 않고 규남이 질주하면 -

<인터컷> 남한 GP 열화상 CCTV. 남측을 향해 달리는 규남의 모습이 포착.
 통문 열리며, 10여명의 수색대가 비무장지대로 전진하고 -

음악, 클라이막스로 향해가는 가운데 -
달리는 규남 앞으로 저기 멀리 산 너머에서 붉은 색이 퍼져 나온다.
일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
달리고, 달리는 규남의 발, 얼굴, 숨소리.

이때, 쑥-
갈대밭 물 젖은 땅에 쑥- 빠지는 발.
규남의 앞을 가로 막는 늪지대.

늪 속으로 점점 가라앉는 규남, 보면 -
건너편 땅에서 늪 위로 떨어진, 갈대 줄기들.
규남, 앞으로 가면
허리를 지나 가슴, 턱... 입까지 덮어 버리는 늪.
망설임없이 눈을 꼭 감고 다시 한 걸음 더 발을 옮기는 순간.
규남은 머리끝까지 잠기며 푸욱 - 허우적 대던 손마저 사라지면 -

정적 속 -
새소리만 들리길 얼마.

늪 위로 솟구쳐 오르는 규남의 손.
더듬대다가, 결국 갈대 줄기를 붙잡아 낸다.
양손으로 줄기를 잡아당겨, 끝내 늪 위로 나타나는 규남의 얼굴.
규남은 늪을 건너내고 만다.

먹었던 뺨을 토해내는 규남.
근처 비 고인 물에 얼굴을 씻고, 앞으로 나아가면 -
표지판 <군사분계선 - 대한민국>.

80. 고지대 아래/ 오전

풀숲을 나아가는 규남, 멈칫.

저 멀리 - 고지대 언덕 위 실루엣들, 대한민국 수색대.
수색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가려는 그들을 향해

규남, 호흡을 가다듬고 앞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발아래서 딸깍-
그대로 멈춘 규남, 발아래를 보면 -
(6.25때 사용했던 기종) M-3 지뢰 덮개.

규남, 수색대를 향해 소리치려는데
순간 뒤통수에 닿는 권총.

현상의 목소리

쉬이잇-

늘지대를 통과한 듯 진흙이 묻어있는 현상.
미동도 없이 규남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으면
그 사이, 저 멀리 사라지는 한국 수색대.
현상, 규남의 머리통을 잡고 당기려는데 -

규남

내가 지금 뭐 밟고 있는지 압니까?

현상, 내려다보면 - 지뢰 덮개가 보이고.
멈칫하는 사이, 현상의 멱살을 낚아채 얼굴 가까이 당기는 규남.

규남

... 총 주십시오, 그럼 놓겠습니다.

현상

그건 아니지.

규남

(손 내밀며) 어서 주십시오, 소좌 동지는 돌아가고 나는 갈 길
가졌습니다.

현상

니 갈길은 (턱으로 뒤통 가리키며) 이쪽이야.

규남

아니지, (턱으로 남쪽 가리키며) 이쪽입니다.

현상

... 미련한 새끼, 남조선이라고 지상락원일 거 같아?

규남

.....

현상

출신 성분 보지 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줄 거 같
나 이 말이야. 세상에 그런 락원은 없어.

규남

... 실패는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현상

...

규남

해보고 싶은 걸 하다 실패하고, 또 해봤다가 또 실패하고.. 멋
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실패조차 할 수 없으니, 내 마음껏
실패하러 가는 겁니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현상

... 야 이 새끼야, 나라고 하고 싶은 것이 없었잖어?!

규남

.....

현상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아무리 몸부림 쳐봐야 소용 없어.

규남

그런지 안그런지 도전해보면 알겠지요.

스- 지뢰 밟은 발을 들어 올리는 규남.

순간 긴장하는 현상. 규남도 긴장하는데 - 폭발하지 않는 지뢰.

규남

해보길 잘 했지 않습니까?

현상

...

규남

피아노 형.

현상

...

규남

형도 하고 싶은 거에 도전해 보시라고.

가만히 규남을 보는 현상.
그러다 순간 몸을 날려 규남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
그대로 쿵- 제압당하며 쓰러지는 규남.
권총을 쥔 현상의 손, 규남의 머리로 가져가려 하면.
규남, 현상의 손을 치버리고 그 바람에 떨어지는 권총.
그러자 규남에게 사정없이 날아오는 현상의 주먹질.

피하거나 맞으면서 버티는 규남,
참고 참다가 한 순간, 주먹을 날리면 그대로 쓰러지는 현상.
지칠대로 지친 규남, 쓰러진 현상을 향해

규남

따라오지 마십시오.

쓰러진 채 차라리 웃는 현상, 몸을 일으켜 떨어진 권총을 주으면 -

81. 고지대 - 대전차장벽/ 오전

- 고지대

수풀 가득 오르막을 달려 올라가는 규남.
헉헉헉 쓰러질 것 같은 물골이지만 결연한 눈빛.
정상에 도달해보면 - 정면 남쪽, 멀리 눈에 들어오는 남한 초소.
그런데 초소를 향해 가는 길을 막고 선,
높이 3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장벽들(대전차장벽).

규남, 죽을 힘을 다해 고지대를 뛰어간다.
저 멀리 - 좌우로 막힌 대전차장벽, 그 회색 벽에 박혀있는 하얀 점을 향해 돌진한다.
장벽에 달린 인터폰. <귀순자용- 수화기를 드시오>
인터폰을 들어 올리는 규남.

규남

조선인민군 임규남 중사, 탈주를 희망한다!!

그러나 노이즈만 들리고 대답 없는 인터폰.
'탈주를 희망한다!!!' 다급하게 반복하는 규남, 그러자

인터폰(V.O)

(직-) ...업니까...? (치익-) 현 위치... (치이이익-)

하더니 꺼지는 인터폰.
규남, 남쪽을 향해 소리친다.

규남

여보시오!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

소리치지만 반응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장벽 위에서 들리는

스피커 (v.o)

북한 병사 여러분---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행복한 자유--- 풍부한 기회를 약속합니다-----

엄청난 데시벨로 나오는 대북 방송.
그 소리에 규남은 망연자실.
이때 규남 근처에서 튀는 총알 파편. 돌아보면 -

뒤편 고지대 부근.
현상, 규남을 향해 다가오며 총을 갈긴다. 탕탕-
하지만 총소리, 대북 방송에 묻혀 들리지 않고.

총알을 피해 달리는 규남.
달려가며 보면 - 길게 뻗은 벽, 그 소실점 사이에 작은 틈이 보이고.

- 현상, 다가서며 저 멀리 규남을 향해 총을 쏘고.

장벽 가운데 뚫린 통로를 향해 달리는 규남.
이때 갑자기 스피커 꺼져버리며, 정적 속 -
현상, 절제된 호흡을 하며 방아쇠를 당기면. 타아앙-

동시에 몸을 휘청- 하더니 쓰러지는 규남.
허벅지에 총을 맞은 채, 숨을 헉헉.

현상, 총을 든 채 쓰러진 규남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서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 규남, 다리를 질질 끌며
어두컴컴한, 길이 30미터 정도되는 굴다리 같은 통로 안으로 들어서고.

점점점 통로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현상.

그 사이 -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리를 질질 끌며 걷는 규남.
한국 영토인 하얀 선이 가까워진다. 5m, 4m, 3m ...

그러나 통로 입구로 들어온 현상,
싸늘한 얼굴로 숨 한번 쉬지 않고 다시금 방아쇠를 탕---

앞으로 꼬꾸라지는 규남.
등에 맞은 총상, 피가 쿵쿵 흘러 넘치며 팔을 뺀 채 쓰러지고.
그러나 손끝이 하얀 선에 아슬하게 닿지 못한 채 멈춤.

현상이 보면 -
죽은 듯 미동도 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규남.
현상, 확인사살하기 위해 총구를 드는데 -

이때, 힘겹게 움직이는 규남의 손. 부들부들 떨리고.
동시에 눈빛이 흔들리며, 가빠지는 현상의 호흡 소리.
마지막 30cm, 20cm, 10cm.. 하얀 선에 닿기 위해 손을 뺀 규남.
그 처절한 모습을 지켜보는 현상.

규남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팔을 들어올리면,
현상, 싸늘한 얼굴로 호흡 멈추고, 방아쇠를 당기려는데 -

바로 그때. 통로를 짹- 비추는 강렬한 빛!

힘겹게 고개 들어 빛을 응시하는 피투성이 규남.
빛을 향해 미소 짓는 규남을 보며 현상,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동시에 땅을 향해 떨어지는 규남의 손, 하얀 선 위에 겨우 걸치듯 툭- 떨어진다.

열린 통문 저편에서 쏟아지는 빛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한국 수색대 군인들.
현상에게 총을 겨누며

수색대 대장

지금 귀측은 유엔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했다. 격발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

총을 거두는 현상, 싸늘하게 웃으며 툭.

현상

여기 비무장지대에 니들은 왜 무장을 하고 있어?!

쓰러진 규남을 마지막으로 보고 돌아서는 현상.
북쪽으로 걸음 옮기며

현상

가라 가, 가서 죽도록 실패하라.

정신을 잃어가는 규남.
한국 수색대가 팔을 잡아 완전히 한국 영토로 끌어 들이며

수색대 대장

귀순 희망잡니까?!

규남

임.. 규.. 남 희망합니다..

말을 끝낸 규남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그러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그제야 번진다.

82. 대대 상황실/ 낮

화면 가득, 단상 칠판에 쓰인 글씨 <집행총화 및 처리위원회>.
대대장과 간부들, 박소위. 현상의 눈치만 살피고 있으면.

현상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공화국에 탈주병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언짢으신 상황이요. 긴테..

현상, 분필을 들더니, ‘처리’ 앞에 뭔가를 추가로 적는다.

현상

‘탈주자 하나가 넘어갔소’ 하고 보고하는 거이 좋았습니까,

<집행총화 및 ‘사망’ 처리위원회>로 바뀐 칠판 앞에 서서

현상

‘둘 다 사살하였소’ 하는 거이 좋았습니까.

(시간 경과)

상황실에 혼자 있는 현상, 뭔가를 내려다보고 있다.
책 ‘위대한 탐험가, 아문센’.
넘겨보면 - 첫 장에 적혀있는 오래된 글귀.

규남

죽음이 아닌 의미없는 삶을 두려워하라
생일 축하한다

피아노 형
1995. 5.

바라보다 피식 웃는 현상.
핸드폰을 열어 선우월에게 답문을 보낸다.
-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보자’.

안전.

83. 규남의 숙소/ 낮

화면 밝아지면 - 유리컵 안에 담긴 투명한 물에 잉크가 번진다.
만년필을 쥐는 손.
규남, 편지지에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 -

자막

1년 후

84. 연주회장/ 낮

피아노 건반을 빠르게 누르는 손,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현상.
얼굴 표정과 온 몸으로 열정적인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으면
객석 외국인들 사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선우월.
뉴스 화면으로 전환되면 -

85. 대한민국 아파트/ 낮

TV에서 뉴스가 흐르고 있다.

뉴스

... 북한 고위층 리택기 도당 책임비서의 아들이자, 국제적인 피아니스트 리현상이 베를린 공항에서 독극물 테러로 추정되는 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독일 당국은 부검을 진행..

특 꺼지는 TV.

엄마와 딸로 보이는 중년 여성과 20대 여성.

택배 온 고구마를 보며 북한 말투로 투덜투덜.

동혁 모

야 밑에꺼 이거 다 뭉개졌네. 썩었다 야.

동혁 여동생

아, 요 협작꾼 간나새끼들... 또 이러네 또.

동혁 모

(딸을 물끄러미 보며) ... 성공이야? 실패야?

동혁 여동생

연락왔다, 출근하라고 하더라. (기뻐하는 엄마와 달리 시큰둥) 돈이 안 맞는다. 자존심은 지켜야지.

동혁 모

이 쌍간나 애미나이, 배폐기가 불렀구나 야.

이때 초인종이 울리고,

동혁 모

뉘기니? 또 택배 시켰니?

문이 열리고 - 현관 앞, 멋지게 빗어넘긴 머리에 근사한 양복을 입은 규남.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서 있다.

규남

안녕하십니까. 동혁이 어머니.

CUT TO

동혁의 엄마, 여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규남.

예의를 갖추면서도, 능청맞게 동혁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준다.

규남

동혁이가 비무장지대 들어갔다 하면, 토끼 이런거는 뭐 기본이고요, 한번은 멧돼지 큰 거를 잡아다 부대 전체가 폭식을 했는데, 간만에 기름이 들어가니 전부 변소칸을 들락날락. (웃음) 또 날씨를 기똥차게 잘 맞췄어요. 동혁이가 빨래한다 그러면 전부 자다가도 일어나서 같이 빨래하고...

규남의 떠들썩한 이야기에 웃음꽃이 피는 동혁의 엄마와 여동생.
동혁 어머니, 웃고는 있지만 눈시울이 별개진다.
손에 꼭 쥔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동혁 모

우리 동혁이.. 잘 있겠지?

순간 먹먹해지지만 규남은 애써 티를 내지 않는다.

규남

그럼요. 행복하게.. 잘 있을 겁니다.

미소 짓는 규남의 얼굴 위로 -

라디오 DJ (v.o)

사연 읽어드릴게요. 오랜만에 손글씨 편지 사연인데요..

86. 양화대교/ 밤

서울 야경 그리고 펼쳐지는 양화대교.

이어폰 귀에 꼽고, 양화대교를 걷는 규남의 모습 위로 -

라디오 DJ (v.o)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나이는 스물 아홉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늦은 나이지만, 저는 제 꿈을 향해 오늘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터컷> 규남의 숙소 - 편지를 쓰는 규남의 모습.

라디오 DJ (v.o)

저는 한동안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습니다. 바라는 거 없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뭐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나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며 회환에 젖는 규남.

라디오 DJ (v.o)

그냥 그런 나를 제가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것이 내 꿈이었
습니다.

자동차들이 썽썽 다니는 양화대교.

규남, 온몸으로 찬바람을 맞으며 보행자 통로를 걷는다.

라디오 DJ (v.o)

그래서 꿈을 이루었는가? 행복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
다. 여전히 힘들고 막막하고 이유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
다.

규남, 보면 - 멀리 한강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라디오 DJ (v.o)

확실한 건, 오늘,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합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는 규남.

모바일 사업자 등록증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사업자 등록증 : 아문센 여행사

라디오 DJ (v.o)

부디, 모두, 행복하세요... 아이디 아문센님, 신청곡 보내드립
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저벅저벅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규남의 모습 위로, 음악 커지며 -

<끝>